



## 제3장 금석문



사진3-18 : 광양 옥룡사 선각  
국사 증성 혜등  
탑비(복원)

### 1. 光陽 玉龍寺 先覺國師 證聖慧燈 塔碑文

崔惟清

海東 白雞山 玉龍寺 贈諡先覺國師 碑銘 并序

翊聖同德功臣守大尉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集賢殿大學士判尚書刑部事監修國事上柱國臣崔惟清奉宣撰  
朝散大夫尚書禮部侍郎翰林侍讀學士知制誥賜紫金魚袋臣鄭敭奉宣書

上 嗣位之四年十月辛酉 詔臣惟清曰 惟先覺國師 道德茂盛於國家功業最深 我祖宗累加封贈 所以致崇極於大師 其盛德大業未文傳之 朕有<sub>恐</sub>焉 仁考既命汝以撰述 其敬之哉 臣聞命惶悸退理其藁得其事實之詳者 <sub>迺</sub>序次而紀之 師諱道詵 俗姓金氏 新羅國靈巖人也 其世系父祖史失之 或云是 太宗大王之庶孽係也 母姜氏 夢人遺明珠一顆 使吞之 遂有娠彌月不近<sub>葷腥</sub> 唯以持經念 佛爲事既乳育 <sub>異</sub>凡兒 雖在提孩 於嬉戲 啼泣之間 其意有若敬畏 佛乘之爲者 父母知其必爲法器 心許出家 年至十五 穎悟夙成 兼解技藝 遂祝髮 <sub>隸</sub>月遊山華嚴寺 讀習大經不闕歲已通大義 文殊之妙智 普賢之玄門 皆契入無遺 學徒百千 咸所駭服以爲神<sub>聰</sub>至文聖王八年 年二十矣 忽自念曰 大丈夫當離法自靜 安能兀兀守文字間耶 于時惠徹大師 傳密印於西堂智藏禪師 開堂演說於桐裡山 求益者多歸之 師<sub>西</sub>區衣禪門 請爲弟子 大師嘉其聰敏 接以至誠 凡所謂無說之說 無法之法 虛中授受 廓爾超悟 年二十三 受具戒於惠

徹大師 既達了義 遊無定所 躡烟霞臨泉石 尋幽逐勝 未嘗怠息 或於雲峯山上  
 穿洞安禪或於太白巖前 結茅坐夏 名稱晉聞 寰海尊其道德 而心忻伏之迹須  
 多 然非要者不錄 曦陽縣白雞山 有故寺曰玉龍 師遊歷至此 愛其幽勝 改葺堂  
 宇 洒然有終焉之志 宴坐忘言三十五年 羊肉引蟻四方雲趨學者執巾匣奉杖  
 履 爲弟子者常數百人 根機差殊一雨普潤 目擊神授 虛往實歸 憲康王敬其高  
 德 遣使奉迎 一見「大悅留止大禁中」每以玄言妙道開發君心 未幾不樂京輩  
 懇請還歸本寺 忽一日召弟子曰吾將行矣 夫乘緣而來緣盡則去 理之常也 何  
 足久居此乎 奄然而寂 時大唐光化元年三月十日也 享年七十二四衆啼泣 如  
 慕如癡遂遷座立塔于寺之北岡 遵遺命也 孝恭王聞之悼歎 特贈諡曰了空禪  
 師 名塔曰證聖慧燈 門人洪寂等 懼先師之景行不傳 啣涕奉表 乞爲紀述 王  
 命瑞書學士朴仁範爲碑文 而竟未鐫于石 始師之未卜玉龍也 於智異山區嶺  
 置庵止息 有異人來謁座下啓師云弟子幽棲物外 近數百歲矣 緣有小枝 可奉  
 尊師 儻不以賤術見鄙 他日於南海江邊 當有所授 此亦大菩薩 救世度人之法  
 也 因忽不見 師奇之 尋往所期之處 果遇其人 聚沙 爲山川順逆之勢 示之顧  
 視則其人已無矣 其地在今求禮縣界 土人稱爲沙圖村云 師自是豁然 益研陰  
 陽五行之術 雖金壇玉笈幽邃之訣 皆印在胸次 爾後新羅政教寢衰 有危亡之  
 兆 師知將有聖人 受命而特起者 因往遊松岳郡 時我世祖 在郡方築居第師過  
 其門曰 此地當出王者 但經始者未諳耳 適有青衣聞之 入白世祖 遽出延入 咨  
 其謀改營之 師因曰 更後二年 必生貴子 於是撰一卷書 實封之進 世祖曰 此  
 書上未生君子 然須年至壯室而後授之耳 是歲新羅憲康王立 唐乾符二年也  
 四年 我太祖 果誕降于前第 逮壯得其書觀之 於是知天命有所屬 遂剷除寇暴  
 肇造區宇 恭惟神聖 豈嘗有心於天下哉 其所以撥亂及正 躋民壽域 洪業休德  
 傳之無窮者 雖復天輔有德 民懷于仁 然 其啓聖期於化元 定成命於幽數 其原  
 皆自吾師發之 蓋其功烈 巍巍赫赫 如此之盛 宜在褒大而追崇之 故 顯王有大  
 禪師之贈 肅祖加王師之號 逮于我 聖考 恭孝大王丕揚列聖 所以念功報德之  
 意 遂進封爲先覺國師 仍遣使 告禮行事于本寺影堂 今上又命刻其事 以馬其  
 傳 盛哉 其無以復加矣 臣嘗試言之夫 帝王之將興 其威靈氣魄必先有以動蕩  
 於物者 故高材絕識者 墳然而起 或爲之先 或爲之後 以致其用焉 若國師之於  
 太祖其 事甚偉 蓋先識之於降生之前 而施其功於身歿之後 其神符冥契 有不  
 可思議者 於戲 師之道 其詣於極者 與佛祖合 其萬於跡者 若張子房之受書  
 於神 釋寶誌之預言未兆 一行之精實術數者 耦 師所傳陰陽說數篇 世多有  
 後之言地理者 皆宗焉銘曰 過去諸祖 有微妙法 非文字詮 非思修攝 超然直指

一念千劫 惟我國師 優入其域 善學無學 眞空不空 眞正法眼 四關六通 推其緒餘 寓數術中 不憑著筮懸解無窮 舊邦俶擾 新命猶闕 先終知終 未至知至 謨書預獻 國祚攸始 作周興漢 如掌斯指 聖人聿起 膺籙受圖 乃眷所屬 發之自吾 人雖隔世 事若合符 殊功偉績 與山河俱 歷歲三百 風流如在 瞻仰高躅 欣天磊磊 勒碑舊祠 揭示千載 咨爾山君 守護無怠

天德二年 歲次庚午 七月乙亥 九日癸未 立

穎悟 三重大師臣處實 奉宣 刻字

### 先覺國師碑陰記

碑既 鐫石之明年 臣與叙 俱爲讒邪所構 或流或貶 朝士皆忌惡 臣等 百喙攻擊 必欲置之死地 以滿讎人之腹 雖祖師事蹟 不繫於臣之賢不肖而 以故無有出一言 碑當立者 其石遂委棄於國清寺門廡之下 二十餘年 塵□土蝕幾 使非常切烈 泯滅而不聞于後世 洎我 聖上陛下 龍飛御極 剷除亂跡 整頓百度 惟新善政 國師法孫 雲巖寺住持重大師志文者 以其事訴屈于大史氏 遂取旨 召光陽縣貢舡 載其石 送于玉龍寺 上遣內侍良醢署承朴逢均 蒞其事 大史擊壺 正李陽靖 相其地 石工召華嚴寺僧衆役夫 徵光陽求禮二縣 軍人監務員 將仕郎衛尉主簿韓彥邦 將仕郎衛尉主簿康立 督其役 住持志文 實摠其事 不日而成 爲堂三間 以大定十二年壬辰歲十月十九日 豎碑訖 趺石峻整 階基堅完 實可以傳千祀萬祀 而不傾圮者矣 其堂直寺之東北二百步許 眞爽塏之壤也 志文又告于 上曰 願依 本朝王國師碑文 舊式於石背載 法孫弟子大德已上職名 以垂示于來裔 癸巳五月二十九日 奏依臣 於是尋其宗派 得所謂正孫者 一十人 附于左方云 松林寺住持重大師迥均 玄岬寺住持重大師旼彥 重大師之曉 重大師志淵 重大師彥宣 重大師宗純 重大師處靈 大師慧溫 大德惠資 大德惠儀

金紫光祿大夫 守司空 中書侍郎平章事 集賢殿大學士 判尙書禮部事 致仕 臣崔惟清奉宣 記

癸巳六月十四日 判許并刻法孫傳特寺四所

大中十年丙子 祖師結菴 嶺與神人相會 開創米站寺 十二年戊寅 開創求禮縣道洗寺

與神人聚沙劃三國圖處 開創三國寺

咸通六年乙酉創雲岩寺

門人玉龍寺住持重大師臣志文奉宣 立石

普賢住持大悟 重大師臣機俊 奉宣 書 門人參學臣正忠奉宣 刻字

康熙五十一年壬辰三月日光陽白~~雞~~山 玉龍寺開刊 大禪師 就詮

時道內都僧統嘉善 孝英

道內公員前判事 清輝

八道都~~總~~撰登階 斗玉

都諫事 善敬

化主前諫事 性丹

印陪 萬載

三綱 天談 性策 弼訓

大禪師秩	僧統秩	主丈秩	本寺秩
思印	若休	松川寺	玉悅
湖然	惠明	定慧寺	玄湜
敏機	克行	興旺寺	心旭
鏡臨	天悅	仙岩寺	夢回
思伯	致玄	松廣寺	<del>赫</del> 日
應初	儀軒	大光寺	就閑
玉修	振宇	大興寺	日心
智聞	萬掄	澄光寺	尙岑
日玉	戊彦	楞伽寺	智應
玄玉	覺還	華 <del>口</del> 寺	時哲
禪准	釋敏	甘露寺	道日
太憲	應 <del>口</del>	普賢寺	善坦
秀演	信和	觀音寺	策諶
雋益	法頌	福川寺	俊密
		深源寺	何悅
		玉泉寺	<del>摠</del> 卞
		龍泉寺	<del>摠</del> 眼
		雙溪寺	敏機
		證心寺	普密
		龍興寺	普贊
		瑞峯寺	順海
		道岬寺	暮占
		大興寺	德贊
		萬德寺	印學
		寶林寺	起玄
		雙峯寺	順堤
			旅主秩
			萬善

六森	靈惠	雲興寺	法敏
初 <sub>四</sub>	尙敏	實相寺	思信
志安	就益	泰安寺	靈哲
萬熏		道林寺	勝初
如照		開興寺	
靈眼		安心寺	
慧哲		萬淵寺	
若坦		龍興寺	
智薰		法天寺	
就 <sub>口</sub> 拉 <sub>眼</sub>		禪雲寺	
快 <sub>四</sub> 日 <sub>行</sub>		歸神寺	
桂銀 太宇		禪鳴寺	
熙鏡 振英		雲住寺	
萬回 慧能		金山寺	
天九 子琇		中臺寺	
覺欽 就全		萬日寺	
弘卞 再仁		神光寺	
		靈雲寺	
		鶯岩寺	
		鳳停寺	

天機 興陽各寺 和順各寺 長水各寺  
 淸遠 長興各寺 同福各寺 鎭安各寺  
 處信 康津各寺 昌平各寺 南原各寺  
 坦靈 寶城各寺 南平各寺 茂朱各寺  
 處學 海南各寺 潭陽各寺 銀山各寺  
 建標 靈岩各寺 靈光各寺 珍山各寺  
 竺敏 羅州各寺 咸平各寺 高山各寺  
 性廓 光州各寺 務安各寺 礪山各寺  
     凌州各寺 茂長各寺 益山各寺  
         沃溝各寺 全州各寺  
 臨坡各寺 泰仁各寺 扶安各寺 古阜各寺  
 任實各寺 長城各寺 高敞各寺 興德各寺  
     黃龍寺 圓興寺 成佛寺 興福寺  
     燕谷寺 香林寺 崇林寺 淳昌各寺  
     桐華寺 瑞石寺 靈信寺 善積寺  
     淨允 元海 刻字時演  
     漢明 信行 通信

漢照	最惠	貫銓
廓照	亢譽	影行
乃豁		貫己

## 1. 광양 옥룡사 선각국사 증성혜등 탑비문<sup>1)</sup>

최유청

해동 백계산 옥룡사 증시선각국사 비명과 아울러 서문

삼가 성동덕공신 수대위 문하시랑 동중서문하 평장사 집현전대학사 판상서 형부사 감수국사 상주국 신하 최유청이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짓고 조산대부 상서 예부시랑 한림시독 학사 지제고 사자금어대 신하 정서는 어명을 받들어 비문을 쓰다.

임금(고려 의종)이 즉위한지 4년(1150년)이 되는 10월 신유일에, 신유청(臣惟淸)에게 분부하기를, “생각컨대 선각국사의 높은 도덕이 장하여 국가에 공업(功業)이 가장 깊으므로, 우리 선왕께서 여러 번 봉증(封贈)을 더하여 극도로 존중하였으나, 그 행적을 지금까지 문장으로 전하지 못한 것을 짐은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 인고(仁考; 부왕 인종)께서 벌써 너에게 「비명」을 지으라는 명령이 계셨으니 공경히 할지어다.” 하셨다. 신(유청)이 이 분부를 듣고 황송히 여기고 집으로 물러나와, 그 초고를 만들어 그 사실의 상세한 것을 얻어, 이제 차례대로 기록한다.

국사(國師)의 휘는 도선(道詵)이요, 속성은 김씨이며, 신라국 영암(靈巖)사람이다. 그 선대와 부조(父祖)는 역사에서 기록이 빠졌다. 혹은 그가 태종대왕의 서손(庶孫)이라 한다. 모친 강(姜)씨의 꿈에, 어떤 사람이 광채나는 구슬 한 개를 주면서 삼키라 하였는데, 삼킨 후 태기가 있었다. 만삭이 되도록 매운 것 비린내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독경과 염불에만 뜻을 두었다. 이미 젖먹을 때부터 보통 아이들과는 아주 달랐고, 어릴 때 장난을 하던지 올 때에도 그 의향이 마치 불법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음이 있었다. 그의 부모가 반드시 명승(名僧)이 될 줄 알고 마음속으로 중이 되기를 허락했다. 나이 15세가 되자 총명하고 속성하며 겸하여 기예에 통하였다. 월유산 화엄사(月遊山華嚴寺)에 가서 머리 깎고 불경을 읽었는데, 한 해도 채 못되어 대의<sup>2)</sup>를 통달하여 문수(文殊)의 미묘한 지혜와

1) 이 비는 玉龍面 秋山里 옛 玉龍寺址에 있었다. 노인들의 말에 의하며 1920년대 초까지는 있었다고 하나 그 후 깨어져 굴러다니다가 부근에 묻혔다함.



- 2) 華嚴經을 말한다.
- 3) 文珠보살은 지혜를 위주로 한 보살이요, 普賢은 행실과 원력「行願」을 위주로 한 보살인데 모두 화엄경에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 4) 선종(禪宗)에서 이심전심(以心傳心)하는 것을 조인(祖印)이니 밀인(密印)이라 한다.

- 5) 禮記에 부모의 뺨을 장사 지낼 때에 상여를 메고 가는 것을 생각하는 듯하고 돌아올 때에는 의심하는 듯하다 하였으니 차마 떠나보낼 수 없어 멈춰서서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보현(普賢)<sup>3)</sup>의 법문(法門)도 모두 깊이 깨달으니, 여러 학도들이 놀라고 칭찬하며 귀신같은 총명이라 했다. 문성왕(文聖王) 8년(846)에는 20세이었다. 갑자기 생각하기를, “대장부가 마땅히 법을 떠나서 고요히 살아야 할 것인데 어찌 문자(文字)에만 부지런히 종사할까보냐” 했다. 때마침 혜철대사(惠徹大師)가 서당지장(西當智藏)대사에게 밀인(密印)<sup>4)</sup>을 전해 받고 동리산(桐裏山)에서 법석(法席)을 여니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대사가 선문(禪門)에 가서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지장대사가 그의 총명함을 가상히 여기어 지성으로 가르쳤다. 무릇 이른바, 말없는 말과 법없는 법을 가르치니 환하게 깨달았다. 23세에 천도사(穿道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대사가 이미 깊은 이치를 통달하고는 거처하는 곳이 일정치 않았다. 연하(煙霞)를 밟고 천석(泉石)에 앉아 그윽함을 찾고, 절승한 데를 따라 일찍이 게으름이 없었다. 혹은 운봉산 밑에서 도굴을 파고 참선(參禪)도 하고, 혹은 태백산 바위 앞에서 띠집을 짓고 여름을 지나기도 했다. 이름이 널리 퍼져 전국에서 숭배하였으며, 도를 행하는데 감응(感應)이 있어 신기한 자취가 자못 많았으나, 요긴치 않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희양현(曦陽懸) 백계산(白鷄山)에 옥룡(玉龍)이란 옛절이 있었다. 대사가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와서 그 그윽한 경치를 좋아하여 집을 중수하고 깨끗하게 평생을 마칠 뜻으로 혼자 앉아 있으면서 말을 잊은 지가 35년이나 되었다. 그래서 사방에서 학도들이 구름 모이듯 그림자 따르듯 하여, 제자 된 자가 수백 명이 되었다. 근기(根機)는 차별이 있으나 한 비로 널리 적시어 눈「目」만이 부딪치고 마음으로 전하여「제자들은」 텅빈 그릇으로 왔다가「배워서」 꼭 채워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헌강왕(獻康王 : 875~885)이 그 높은 덕을 숭배하고, 사신을 보내어 맞아들여 한 번 보고는 기뻐하여 궁중에 만류해 두고, 항상 현묘(玄妙)한 도리로 왕의 마음을 개발(開發)시켰다. 얼마 안되어 성안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아 간청하여 본절로 돌아갔다. 갑자기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나는 장차 갈 것이다. 대저 인연을 타고「이 세상에」 왔다가 인연이 다 되면 가는 것은 이치의 떳떳한 것이니 어찌 싫어하겠는가”하고, 말을 마치자 가부좌(跏趺坐)하고 앉아서 입적(入寂)하였다. 때는 당나라 광화(光化) 원년(신라 효공왕2년, 893) 3월 10일이다. 향년(享年)이 72세이다. 사중(四衆)들이 눈물을 흘리고 부모를 생각하듯 의심하듯<sup>5)</sup> 하면서 앓은 시체를 옮기어 절 북쪽에 탑을 세웠으니 유언(遺言)을 따른 것이다. 효공왕이 듣고 슬퍼하여 특히 요공선사(了空禪師)의

시호를 주고 탑 이름을 증성혜등(證聖慧燈)이라 했다. 제자 홍적(洪寂) 등이 스승의 높은 행적이 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눈물을 머금고 표문(表文)을 올려 기록해 주기를 청하므로 왕이 서서학사(瑞書學士) 박인범(朴仁範)에게 비문(碑文)을 지으라고 명했으나 마침내 돌에 새기지 못했다.

처음에 대사가 옥룡사를 중건하기 전에는 지리산 구령(區嶺)에서 암자를 짓고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대사의 앞에 와서 뵈고 말하기를, “제가 세상 밖에서 숨어 산 지가 근 수 백년이 됩니다. 조그마한 술법이 있으므로 대사님에게 바치려하니, 천한 술법이라고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뒷날 남해의 물가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보살이 세상을 구제하고 인간을 제도하는 법입니다.”하고, 간테 온데 없어졌다. 대사가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가 말한 남해의 물가를 찾아갔더니,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모래를 쌓아 산천의 순역(順逆)의 형세를 보여 주었다. 돌아본즉 그 사람은 없어졌다. 그 땅은 지금 구례현(求禮縣)의 경계인데, 그곳 사람들이 사도촌(沙圖村)이라 일컫는다. 대사가 이로부터 환하게 깨달아 음양(陰陽) 오행의 술법을 더욱 연구하여, 비록 금단(金壇) 옥급(玉笈)<sup>6)</sup>의 깊은 비결이라도 모두 가슴속에 새겨 두었다. 그 뒤 신라의 정치와 교화가 점점 흐려져서 위태하고 멸망할 조짐이 있었다. 대사가 장차 천명을 받아 특출한 자가 있을 줄 알고 간간이 송악군(松岳郡: 지금의 개성)에 가서 놀았다. 때마침 우리 세조(世祖: 고려 태조의 부친)가 송악군에 살림집을 짓고 있었다. 대사가 그 문 앞을 지나다가 하는 말이, “여기는 마땅히 왕이 될 자가 날 것인데 이 집을 경영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구나.”하였다. 마침 계집종이 이 말을 듣고 들어가 세조에게 알리니, 세조가 급히 영접해 오게하고, 들어가 그가 시키는 대로 고쳐 짓게 하였다. 대사가 하는 말이 “고친 뒤 2년 만에 반드시 귀자를 낳으리라.”하고 한 권의 책을 지어 봉하여 세조에게 바치면서 하는 말이, “이 글은 장차 그대가 나를 아들에게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 장년이 되거든 주라” 했다. 이해 신라 현강왕이 새임금이 되니 당나라 건부(乾符) 2년인데 4년(877)에는 우리 태조가 과연 앞서 말한 그 집에서 태어났다. 장년이 되자 그 봉해서 준 책을 받아 보고 천명(天命)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고 도둑들과 포악한 무리들을 없애버린 다음 국가를 처음 이룩하였다. 생각컨대 신성한 태조께서 어찌 일찌기 천하를 얻겠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두었겠는가 그 어지러운 것을 숙청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백성을 잘 살수 있는 데에 올려놓고, 커다란 업적과 아름다운 덕택이 한없이 전하게된

6) 金壇은 신선이 사는 곳이고  
玉笈은 조교의 密書를 감춘 상자이다.



것은, 하늘은 덕있는 자를 돕고, 백성들은 인자한 임금을 생각하는 법이다. 그러나 그 성스러운 시대를 창업(創業)하여 조용한 가운데 정해진 운수를 받는 것은 그 원인이 모두 우리 대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대개 그 공로와 사업의 높고 빛남이 이렇게 대단하니, 마땅히 크게 포양하고 높게 봉증할 것임으로 현왕(顯王)은 대선사의 증직이 있었고, 숙조(肅組)는 왕사의 호를 더했으며, 우리 성고(聖考; 지금 임금의 돌아간 아버지) 공효(恭孝)대왕에 이르서는 선왕들의 공로를 기념하는 덕화를 보답하려는 뜻을 더욱 선양(宣揚)하여, 드디어 선각국사로 봉하고 또 사신을 보내 본사 영당(影堂)에 예로써 고하고, 지금 왕께서 또 그 사적을 새겨서 오랫동안 전하도록 명령하니, 장하심이 다시 더할 나위 없도다. 신이 일찍이 시험삼아 말하기를, “대개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에는 그 신령스러운 위력과 기염(氣焰)은 반드시 남을 움직이고 울렁거리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재주와 절등한 식견이 있는 자가 수없이 일어나, 혹은 앞서고, 혹은 뒤서서 쓰여지는 법이다. 대사가 태조왕께 대해서 그 사업이 심히 위대하였다는 것은, 태조가 탄생하기 전에 먼저 알았고, 그 효력은 자신이 죽은 뒤에 시행되게 되었으니, 그 신기하게 맞춘 것과 가만히 도운 뜻이 도저히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일이다. 아! 대사의 도가 그 극치에 나아간 것은 불조(佛祖)와 합치되고, 행적에 나타난 것은 마치 장자방(張子房)이 신(神)에게서 글을 받은 것<sup>7)</sup>과 같고, 보지대사(寶誌大師)가 앞으로 닥칠 일을 예언함<sup>8)</sup>과 같고 일행(一行)<sup>9)</sup>이 술수(術數)에 정통한 것과 짝이 되리로다. 대사가 전한 음양설(陰陽說)은 세상에 많이 있어, 뒤에 자리를 말하는 자들이 다 숭상한다. 명(銘)하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는 미묘한 법이 있다. 문자로 기록된 것도 아니요, 사수(思修)에 따른 것도 아니다. 초연(超然)이 바로 진심(真心)을 가리키며 일념이 천겁(千劫)<sup>10)</sup>이다. 오직 우리국사는 넉넉하게 그 지경에 들어갔다. 잘 배움은 배움이 없는 것이며, 참으로 공(空)한 것은 공(空)이 아니다. 정법안(正法眼)을 갖추었으니, 4방으로 열리고 6모로 통했다. 오직 그 나머지 실마리로 술법에 뜻을 두었다. 시초(蓍草)로 점치지 않아도 미리 아는 것이 무궁하였도다. 옛 나라가 흔들리고 새 운명은 아직 감감했다. 끝내기 전에 끝날 줄 알았고, 오기 전에 올 것을 알았다. 글을 지어 미리 바쳐, 국가의 복이 시작되었다. 주(周)나라를 만들 듯 한(漢)나라 일으키듯, 손바닥 가리키듯 환히 보았다. 성인(聖人)이 일어나서 왕위를 이어 받을 제, 미리 기대하고 부탁한 것이 모두 나에게서 나왔다. 사람들은 세대가 달랐으

7) 한(漢)나라 장량(張良)의 자(字)가 자방인데, 황석공(黃石公)이란 신인(神人)에게 소서(素書)라는 글을 얻어서 그것을 써 한 고조(漢高祖)의 창업(創業)을 보좌하였다.

8) 육조(六祖)시대에 보지(寶誌)라는 신승(神僧)이 있어 술법이 많고 예언(預言)을 많이 하였는데 꼭꼭 맞았다.

9) 一行은 당나라 중으로 術數에 통하였는데 특히 천문학에 능하고 예언도 하였다.

10) 일념(一念)은 가장 짧은 시각을 말하고 천겁(千劫)은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데, 불법을 깨달으면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나, 일은 오늘에 부합되었다. 특수한 공로와 거룩한 실적이 산하(山河)와 함께 했네. 3백년 지낸 오늘 그 모습 보는 것 같다. 높은 유축을 우러러보니, 하늘을 혼든 듯 현결차다. 옛 사당에 비를 새겨 천추에 알리노니 “듣거라 산신령은 게으름 없이 수호하라”하였다.

천덕 2년(고려 의종 4년, 1150년) 세차 경오 7월 을해 9일 계미에 비를 세우고, 영오(허실의 法號)삼중대사 신하 허실이 왕명을 받들어 글자를 새기다.

### 선각국사비음기

비문이 이미 돌에 새겨진 이듬해(1151년) 신(최유청)이 정서와 함께 무고에 얽힌바 되어 귀양을 가기도 하고 또는 공직에서 파면되었다. 조신들이 모두 저희들을 미워하여 여러 가지로 쪼고 내리쳐서, 반드시 죽을 지경에 두고 싶어하여 원수가 사람의 뱃속에 가득했다. 비록 선각국사의 사적이 저희의 어질고 갖잖음에 얽매이지 않는데도 한마디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비석이 마땅히 세워져야 할 것이나, 그 비석이 드디어 국청사의 문간채 아래 버려져 20여 년간 방치되어 먼지에 덮혀 쌓이고, 흙이 묻어 부식되어 어찌 비상한 공적이 자취가 없어져 후세에 들리지 않게 하겠는가? 우리 성상 폐하께서 즉위함에 이르러 나라를 다스리어 어지러운 사태를 깎아 없애며 여러 가지 제도를 가다듬고 선정을 새롭게 했다. 국사의 법손 운암사주지 중대사 지문이란 분이 그 일로써 대사씨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니 대사씨가 드디어 어지를 받아 광양현 세공선을 불러서 그 비석을 실어 옥룡사에 보냈다. 임금께서 이어 내시 양은 서승 박봉균 이를 보내어 공사를 감독케 하고, 대사 계호정 이양청에게 터를 정하도록 하였다. 석공이 화엄사 중무리와 일꾼을 부르고 광양구례 두 고을의 군인 감무원을 징발하여 장사랑 위위주부 한언방과 장서랑 위위주부 강입서가 그 일을 감독하고, 그러나 실제로 주지 지문 스님이 총감독을 맡아 얼마되지 않아 대정 12년(고려 명종 2년, 1172년) 임진년 10월 19일에 비석을 세워서 마쳤다. 밀돌이 커서 짜임새 있고 증계터가 튼튼하여 참으로 천년 만년이 지나도 기울지 않을 것이다.

그 당집은 바로 절의 동북쪽 약 2백보 지점에 세웠으니 참으로 현철한 위치이다. 지문스님이 또 임금께 고하여 이르기를 원하옵건대, 우리 조정의

왕사인 국사의 비문도 구식에 의하여 비음기에 법손과 제자중에 대덕이상  
의 직명을 실어 미래에 영원히 후손들에게 가르쳐 보이도록 간청하였다. 계  
산년(고려 명종 3년, 1173년) 5월 29일 주청하여 신(최유청)에게 비음기  
를 짓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종과의 문손을 찾아 이른바 정손 10인을 아래와 같이 부  
기하여 이르되 송림사 주지 중대사 현균, 현갑사 주지 중대사 민언, 중대사  
지효, 중대사 지연, 중대사 언선, 중대사 종순, 중대사 처령, 대사 혜온, 대덕  
혜자, 대덕 혜의, 금자 광록대부 수상공 중서시랑 평장사 집현전대학사 관  
상서 예부사 치사 신 최유청이 왕명을 받들어 기록하다. 계사(1173년) 6월  
14일 임금의 윤험으로 아울러 법손들이 전지하고 있는 4개의 절도 새겨둔다.  
대중10년(신라 문성왕 18년, 856년) 병자년에 도선국사가 지리산 구령에  
서 암자를 짓고 정진하고 있을 때 신인과 서로 만난 후, 미점사를 창건하였  
고 대중12년(858년) 무인년에 구례현에 도선사를 창건하였으며 신기한 사  
람과 모래를 모아 삼국도를 그은 곳에 삼국사를 열고 경문왕 5년(865년)  
을유년에 운암사를 열었다.

문인하생 옥룡사 주지 중대사 신지문이 왕명을 받들어 비를 세우고, 보현  
사 주지 대오 중대사 신 기준은 조칙을 받들어 비문을 쓰며, 문하생 참학 신  
정충이 어명을 받들어 글자를 새기다.



사진3-19 : 광양 옥룡사 통진대사 보운탑비 (복원)

## 2. 光陽 玉龍寺 洞眞大師 寶雲塔碑

□麗國 光州 晞陽縣 故白雞山 玉龍寺 制諡洞眞大師寶雲之塔 并序  
通直郎正衛 翰林學士 賜丹金魚袋 臣 金廷彦 奉制撰 門弟子 沙門 臣  
釋玄可 奉制 書

恭惟 法身動寂道 體希夷塵區 懸見聖之心沙界掛求仁之念 大雄西降  
眞法東傳 於是僧會遊吳 摩騰赴漢 佩梵仙之密印 演禪伯之秘宗 遂使  
學佛化人 習禪濟俗 蓋亦生寶月於楞伽之上 杳想金人 得玄珠於赤水之  
中高憑罔象 爰回聖蹟 只在心心 懸目鏡以西遊 苞含衆妙瑩心珠而東返  
攝化群生 釋門高闢於風丘 玄道聿興於震域 佛者覺也 師而行之 大師  
其人矣 法諱慶甫 字光宗俗姓金氏 鳩林人也 父益良 位闕粲 龔出降靈

毓光華之餘慶 雞林誕粹 騰奔葉之弥芳 母朴氏 行葉風清心花露臺 中饋無非  
 於壺政內和 自是於家肥 於咸通九年 相月哉生明夜夢 白鼠銜青琉璃珠一顆  
 而來 遂人語曰此物 是希代之奇珍 西玄門之上寶 懷須 護念出必輝光因有娠  
 處心齋戒 如來出世之月 二十日誕生 大師誕彌月以無薔蓓果 髫年而有慶則  
 是法芽尚早 勝果逆脩 雖居兒戲之中 猶在童年之上 年登幼學 纒傾鼓篋之心  
 德貴老成 既有緇門之志 迺告二親曰 願得離塵之請 期脩登地之因 雖乏惠柯  
 唯期法棟父母潛然歎曰 成己仁也 成物智也 合內外之道也 汝棲禪而美則美  
 矣 我割愛而悲莫悲兮 大師志在其親 心期即佛 父母乃曰 人所欲者天且從之  
 豈特愛子之因 猶有嚴君之拒 遂泣而訟 直往夫仁山寺 落采因栖學藪未樂禪  
 山 迅足空留 它心尚往 魂交之夕金僊摩頂提耳 迺授之方袍曰 汝其衣之所以  
 衛身而行乎 且此地 非心學者 栖遲之所 亟去之不亦宜乎 大師即以形開 因而  
 警戒 以為道之將行 時不可失 味爽坐以待 旦挈山裝鳥逝 乃詣白雞山 謁道乘  
 和尚 請為弟子 修菩薩道 入如來家 觀奧之眼 曾開知幾之心 既悟以為非智  
 無以護其法 非戒無以防其違 年十有八 稟具於月遊 山華巖寺忍草抽芽 浮囊  
 濟浪 益驗戒香之馥 孔彰心石之堅 坐雨方終 出雲還似 復往白雞山 辭大師  
 師因 謂曰 汝其志不可奪 勢不可遏 汝以吾為東家丘 末如之可 遂笑而聽去 自  
 尙遊有泛覽 學無常師歷謁聖住無 染大師 岫山梵日大師 譚柄纒 揮 玄機了見  
 念言 于以採玉 于以探珠 道遠乎哉 行之則是 遂於景福元年壬 子春 出山翺  
 翺 並海飄飄 爰傾入漢之心 乃告凌波之客 許之寓載 忻以同行 已過秦橋 旋  
 臻漢地雲心訪道 浪跡尋師 乃詣撫州疎山 謁匡仁和 仁若曰格汝鯨海龍子耶  
 大師玄言遂聽 秘說爰諮 許以昇堂 因而入室 方資目擊 既得心傳 仁公大喜因  
 謂曰 其有東流之說 西學之求者則可與言道者 鮮矣東人可目語者 唯子誰今  
 執手傳燈 因心授印 汝其盤桃山側 搗佛日以再中蒸棗海隅 導禪河而更廣必  
 矣 自是僧之真者 必詣 境之絕者 必搜去謁江西老善和尚和尚乃欲聽其言 觀  
 其行因 謂曰白雲鎖斷行人路 答曰自有青霄路 白雲那得留和尚 以大師棲對  
 不羈 鷗言無礙 乃送之曰 利有攸往時然後行 大師 以鵬必變於南溟 鶴自歸於  
 東海 思欲罷遊華夏 返照桑津 適值歸舟 因而東還 天祐十八年夏達全州臨陂  
 郡而屬道虛行之際 時不利之初 粵有州尊都統甄太傅瑩 統戎于萬民堰也 太  
 傅本自善根 生於將種方申壯志 雖先擒縱之謀 暨謁慈顏 倍勵瞻依之志 乃歎  
 曰 遇吾師而雖晚 為弟子以何遲 避席拳拳 書紳隨造 遂請住州之高地 南福禪  
 院 大師曰 鳥能擇木 吾豈匏瓜 迺以白雞山玉龍寺者 是故 師為樂道之清齋乃  
 安禪之勝踐 雲谿空在 枕漱最宜 遂言於太傅 許之移而住焉 實謂筏既捨於歸

塘 珠復還於舊浦 踵慈軒之往轍 繼智炬之餘輝於是絕學者 遂相慶曰 雖懊頃  
 年 泰山有其頽之歎 且歡今日介衆 無安仰之悲 搢衣者寔繁有徒 曳屨者其數  
 不億 大師一居雲水 二紀星霜 朗鏡忘罷 洪鍾待扣 循循然善誘于扶桑頃 及乎  
 清泰三年丙申秋 我太祖神聖大王躬環周衣 手提漢劍 龔行天罰 丕冒海隅協  
 和三韓 奄有四郡 加復輯寧君子國 瞻仰梵王家 聞大師雲遊西上 以有歸霧隱  
 南山 而無悶 栖眞絕境 貯福壽區太祖於是 企望清風 遙瞻白月 遽飛 芝檢徵  
 赴玉京及其目覩鳳來儀 耳聆龍變化 雖是歸僧之禮方同奉佛之儀 大師 乃月  
 過蒼天 雲歸碧岫 寂寂葆光於塵外 玄玄施化於域中 所謂不肅而成無爲而治  
 競 奔馳於善道 俱出入於福門 未幾龍遽墮鬣 魚難在藻 杞國有天崩之歎 咸池  
 無日耀之光 義恭大王 奉以遺風 繼之先志 注精心而齋醮 祈法力以孜孜 奄弃  
 人間 已歸天上 文明大王 陟崗致美 莅阼重光 聯華弘天空之風 握鏡照海邦之  
 俗 仍飛鳳筆佇降衆軒 越三季 龍集協洽 四月二十日大師將化往壘浴已訖 房  
 前命衆 悉至于庭西遺戒曰 我既將行 衆其好住 塵俗有貴賤 空門無尊卑 水月  
 澄心 煙霞抗跡 衣必均服 食無異糧 止宜以採薇爲裏糧 以禪悅爲飫味則是吾  
 徒也 適我願兮 吾道有何觀行 無餘力尙衆 致我塔以藏遺體 碑以紀行事 無以  
 爲也 不亦宜乎則是瞻玄福於人 師矣 言畢入房倚繩牀趺坐 儼然而示 滅于玉  
 龍上院 嗚呼 存父母體 八十春入菩薩位 六十二夏是晨也於玄武山嶺頭 有如  
 四五人嬰兒之呱呱者日慘香庭 風悲寶刹 松柏帶哀哀之色 人靈含惻惻之聲  
 翌日奉遷神座於白雞山 龕權施石戶封閉文明大王 聞之震悼不勝 乃使駛  
 吊以書曰 故玉龍禪和尚 片月遊空 孤雲出岫 乘桴西泛 掬瑤東歸 慈風吹萬里  
 之邊 禪月照九天之外者 唯實吾師矣 故追諡洞眞大師 塔號寶雲 仍令國工 攻  
 石封層塚 越二季門人等 開龕觀形面如生西 號奉色身 豎塔于白雞山東之雲  
 巖崗 遵顧命也 尙其霞岑屏擁 雲澗鏡清 誠毓慶之神區 乃歸眞之秘宅彼入雞  
 足山 待慈氏者 聯鑿拉帆 非我而誰 大師出世奇姿 本自天然以仁由己 以德分  
 人 使禪子莘莘 法孫濟濟 心燈紹燭 行葉傳芳 厥有傳法 大弟子 泉通禪師等  
 並執心喪 追攀眼訣 乃相議曰 吾輩確奉先志 堅守遺言若不法碣銘勳禪碑紀  
 勒石 則無以爲先於是乎 在尊祖 其所由來 遂抗表 請幼婦之文辭 紀先師之事  
 業 制曰可豈悟號弓 遽值勒石 仍稽故 乃門人等 空悲雞岫之韜光哀深掛地 更  
 紀虎溪之潛影 聲有聞天 □□□今上 瓊萼聯芳 瑤圖襲慶 聿修祖業 光啓先風  
 常輸百行之誠 益勵三歸之志 遂詔翰林學士 臣 金廷彥曰 故玉龍大師身生有  
 截 心學無邊 去傳迦葉之玄宗 來化青丘之 頽俗能以靜利利人世 不言其所利  
 大矣哉 以爲將酬大士之恩立言不朽 須在外孫之作 垂裕無窮 若宜以鴻筆書



勳 龜珉紀事 示玄蹤於世世 旌景行於生生 臣 汗流浹背 拜稽首遂言曰 臣載筆無能 編苦有媿 纂色絲而無能爲也 分空縷以不亦難乎 請筆路斯避 上曰仗義而行 當仁不讓 臣也 茲晨承詔 實無賈勇之餘 他日受辛 空取效韓之誚 斲憂傷手 求甚剋身 遂絆猿心 强搖兔翰 重宣其義 而爲頌曰

教無非奧 禪無非空 道何心外 佛卽身中 煦之慧晷扇以眞風 早認矛佛唯我 禪公(一其) 勝葉扶疎 鉢花蓓蕾 休有道光 不因詞彩 佩印踈山 傳燈碧海 桃李不言 稻麻斯在(二其) 說不可說 玄之又玄 化人有赫 弘道無邊 君臣際會 士庶因緣 洪名絕後 懿耀光前(三其) 濟世慈威 寰區美利 月墜禪庭 山頽聖地 藿白屬辭 芥城有備 雖媿斯文 直書其事(四其) 顯德五年歲次敦牂八月十五日 立門生釋繼默 鐫字

(碑身高六尺五寸 幅三尺五寸 字經六分 楷書)

「木板本」 板刊 生員 朴明震 書  
 「刊記」 刻手 時演, 通信  
 願演, 擇修  
 鍊板 敏活  
 印出 尙益

## 2. 광양 옥룡사 통진대사 보운탑비

高麗國 光州 晞陽縣 옛 白鷄山 玉龍寺 洞眞大師 寶雲塔碑文과 아울러 서문, 通直郎 正衛 翰林學士 賜丹 金魚袋 臣 金廷彦<sup>1)</sup>이 왕명을 받들어 碑文을 짓고, 門弟子 沙門 臣 釋玄可<sup>2)</sup>는 교지에 의하며 글씨를 쓰다.

공손히 생각해 보건대 法身은 動과 寂인 양면이 있고 道體란 希하고 夷<sup>3)</sup>하여 중생세계 중에 聖人을 보는 마음을 달아 놓고, 사마세계에 仁을 구하는 생각을 걸어 놓았다. 大雄<sup>4)</sup>께서는 西竺에 태어나셨고, 그 眞法은 동방으로 전래하였다. 이로부터 康僧曾는 吳나라에서 전법하고 摩騰大師는 漢나라로 와서 부처님의 密印을 가지고 禪伯의 깊은 宗旨를 연창하였다. 드디어 불법을 배우게 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禪을 익히게 하여 세속을 구제하였으니, 寶月이 능가산 위에 떠오름에<sup>5)</sup> 조용히 金人<sup>6)</sup>을 생각하게 하였다. 玄珠를 赤水中에서 찾았음은 오로지 罔象<sup>7)</sup>에 의거하는 것과 같았으니, 이는 묵묵함을 말미암은 것이고, 다만 心中에만 있을 뿐이다. 目鏡을 찾으려고 서

- 1) 金廷彦: 문신. 翰林學士內奉令 參知政事監修國史를 지냈고, 京畿道 驪州郡 北內面 上橋里에 있는 보물 제6호인 「高達寺 元宗大師 慧眞塔碑文」과 「覺淵寺 統一大師塔碑文」, 「普願寺 法印國師碑文」 등도 지었다.
- 2) 釋玄可: 당시 뛰어난 名筆. 洞眞大師의 門人
- 3) 希夷: 「長興 寶林寺 普照禪師 碑文」註 10 希夷條
- 4) 大雄: 부처님을 지칭함
- 5) 生寶月於楞伽之山: 寶月이 楞伽山頂에 떠 오른다는 말. 楞伽란 楞伽山의 준말. 初期禪宗의 所依經典인 「楞伽經」이었으므로 楞伽는 楞伽宗이니, 楞伽宗은 禪宗의 代名詞임.
- 6) 金人: 金人은 紫磨金身을 가진 佛陀를 지칭함.
- 7) 罔象: 皇帝가 赤水에서 잃어버린 玄珠를 찾아낸 소경(盲) 象罔과 같은 말



- 8) 釋門 : 불교를 가리킴
- 9) 風丘 : 仁風이 가득한 언덕. 즉 君子의 德風이 항상 부는 나라이니 釋迦가 탄생한 印度를 가리킴이나, 여기서는 海東을 뜻함.
- 10) 玄道 : 선종을 지칭함
- 11) 震域 : 震旦 또는 震那, 支那라고도 하니, 印度에서 古代 中國을 지칭함이나, 여기서는 震方인 동국. 즉 우리나라를 가리킴
- 12) 鳩林 : 鷄林과 같은 말(경주를 가리킴)
- 13) 鰲山 : 鰲山이니 慶尙北道 淸道의 옛 이름
- 14) 奕은 代의 바뀔 역字. 代代 또는 累世와 같은 뜻이니 신라의 歷代朝廷이라는 말.
- 15) 壺政 : 宮中之政治. 남편이 宮中에서 복무하는 閹察이므로 그의 夫人은 마땅히 宮中의 안 살림을 돌보게 되기 때문임. 顏延之의「宋文皇帝元皇后哀策文」에 “壺政穆宣 房樂韶理.” 그註에 “壺政은 謂宮中之政明也”라 하다.
- 16) 咸通九年 : 唐나라 宣宗代의 年號. 신라 제48대 景文王 8년(868)
- 17) 相月 : 陰曆 7월의 다른 이름.
- 18) 哉生明 : 음력 초3일
- 19) 髫季 : 童年을 가리킴.
- 20) 己仁 : 自己에 따른 仁行이니, 儒敎의 德目인 仁義의 仁을 지칭함.
- 21) 物智 : 物은 衆生을 가리킴. 智는 有情과 無情이 同體임을 관찰하는 지혜

쪽으로 유학하여 衆妙를 터득하였고, 心珠를 갖고 닦아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못 중생을 교화하였으니, 釋門<sup>8)</sup>은 風丘<sup>9)</sup>에 높이 열렸고, 玄道<sup>10)</sup>는 震域<sup>11)</sup>에 크게 중흥하였다. 佛이란 깨달았다는 뜻으로, 그를 스승 삼아 修行하는 것이니 大師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하겠다.

법휘는 慶甫요, 字는 光宗이며, 속성은 김씨로써 鳩林<sup>12)</sup>출신이다. 아버지는 益良이니 관위는 闕絜이었다. 鰲山<sup>13)</sup>이 내린 岳靈을 받아 光華의 餘慶을 육성하였고, 계림에서 탄생하여 奕葉<sup>14)</sup>으로 더욱 아름다움을 드날렸다. 어머니는 朴氏이니 품행을 풀잎에 나부끼는 맑은 바람과 같이 우아하고, 마음은 꽃잎에 매달려 있는 이슬과 같이 투명하였다. 宮中에서는 왕의 수라상에 대한 뒷바라지에 정성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궁 안에서는 王妃를 도와 內和를 도모하였으며<sup>15)</sup> 이로부터 가문이 크게 창성하였다. 咸通 9년<sup>16)</sup> 相月<sup>17)</sup> 哉生明<sup>18)</sup>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흰 쥐가 푸른 유리구슬 1개를 물고 와서 사람의 말을 하되 “이 물건은 希代의 珍寄한 보물이니, 바로 玄門의 上寶이다. 가슴에 품고 護念하면 반드시 빛나는 광명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임신하였는데 항상 마음을 맑게 하여 齊戒하다가 음력 4월 20일에 탄생하였다.

집안에는 한치의 땅도 없었으나 髫年<sup>19)</sup>에 이르러서부터 가산이 일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前生에 이미 法牙를 닦았고, 勝果를 逆修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아이들과 노는 가운데 있으나, 오히려 童年의 위에 있었다. 나이 幼學의 시절이 되어서는 책을 메고 學堂에 들어가려는 마음이 있었으며, 덕은 老成한 사람보다 귀하였다. 이미 불교에 출가 수도하려는 뜻을 품고는 二親에게 告하되 “세상의 塵勞를 여의고 出世間인 佛地에 오르는 인연을 닦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달라고 간청하였다. 비록 慧精의 才質은 부족하나, 오직 불법의 동량이 되기를 기약하는 마음은 굳게 다짐하였다”라고 여쭙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는 말 없이 탄식하고 “己仁<sup>20)</sup>을 이루고 物智<sup>21)</sup>를 이룩하여 이미 内外의 道에 합하였다”면서 “네가 출가하려는 뜻은 좋으나, 너와 헤어짐은 슬프고 또 슬픈 일이라”하자, 大師가 “뜻은 부모의 곁에 있으나, 마음의 약속은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라 하였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의 원하는 바를 하늘도 따라 주는 것이거늘 내 어찌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로서 거역할 수 있겠는가”하고 드디어 울면서 허락하였다. 대사는 곧바로 夫人山寺로 가서 삭발하고, 경전을 배우는 강원으로 들어가 교리를 배웠다. 禪山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빠른 걸음으로 行脚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어느 날 밤 꿈에 金仙<sup>22)</sup>께서 이마를 만지며 귀를 잡고 方袍를 주면서 “너는 이 가사를 입어야 하니 그 까닭인 즉 앞으로 이를 몸에 두르고 修行하되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곳은 心學者의 참선하는 곳이 아니다. 곧 바로 떠나가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거늘 대사는 잠을 깬 다음, 깊이 생각하되 “이는 앞으로 내가 수도의 길을 떠날 조짐으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찌 가만히 앉아서 때를 기다리겠는가” 하고, 入山하는 행장을 꾸려 마치 새처럼 집을 나와 白鷄山으로 나아가 道乘和尚<sup>23)</sup>을 배알하고 간청하되 弟子가 되어 보살도를 닦아 如來의 집에 들어가서 오묘한 眞理를 보는 지혜의 눈과 모든 事物의 근원을 아는 마음을 열도록 지도를 간청했다. 이미 깨달은 것은 智慧가 아니며, 그 佛法을 옹호할 수도 없으니, 오직 戒律이 아니면 非違를 막을 수 없다하여 열 여덟살 때, 月遊山<sup>24)</sup> 華嚴寺에서 구족계를 받고는 忍草에서 싹이 돋고, 또한 浮囊<sup>25)</sup>을 굳게 지닌 듯하여 戒香의 향기로움을 더욱 퍼지게 하였고, 마음을 돌과 같이 견고히 하였다.

그 후 여러 해 동안의 坐雨의 夏安居를 마치고, 雲水行脚을 하다가 다시 본사인 白鷄山으로 가서 道乘스님을 뵈고 하직 인사를 드렸더니, 도연대사가 이르되 “너의 뜻을 꺾을 수 없으며, 또한 자네의 굳은 의지를 막을 수가 없구나! 너는 나를 東家の 丘로 삼으려 하였으나, 나에게서는 그러한 지도 능력이 없으니 어찌할 수 없다” 하고 웃으면서 尋師訪道의 길을 떠나기를 허락하였다. 그로부터 諸方으로 행각하되 배움에 있어 일정한 常師를 두지 아니하고, 성주사의 無染大師, 굴산사의 梵日大師 등을 차례로 친견하여 법문을 듣고 玄機를 깨닫고 생각하기를 ‘玉을 캐고 구슬을 탐색하듯 道가 어찌 먼 곳에 있겠는가. 行하면 바로 그 곳에 있다’ 고 하였다. 드디어 景福元年<sup>26)</sup> 임자년 봄에 훨훨 산을 나와 바람처럼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유학할 마음을 굳혔다. 마침내 船長에게 간청하여 便乘을 허락 받아 기꺼이 同行하게 되었다. 秦橋를 지나 漢나라에 이르렀다. 雲水의 마음으로 도를 묻고 여기 저기 선지식을 찾았다. 撫州의 疎山으로 가서 匡仁和尙<sup>27)</sup>을 친견하였다. 광인화상이 말하되 “너는 큰 바다의 龍이 되고자 하는가.” 和尚이 玄言을 드날리면서 祕說을 묻고는 곧 昇堂하게 하여 入室을 허락하였다. 바야흐로 目擊道存의 心印을 깨달아 이심전심의 정법안장을 전해 받았다. 匡仁和尙은 크게 기뻐하면서 “중국 法統이 해동으로 흘러간다는 說과 西學을 위하여 중국에 와서 유학하는 구도자 중에 가히 더불어 道를 논할 만한 자는 극히

22) 金仙 : 大覺金仙의 준말이니 부처님을 지칭함.

23) 道乘和尚 : 光陽 玉龍寺 洞眞大師 慶甫의 恩師스님. 道誥으로 추정됨.

24) 月遊山 華嚴寺 : 智異山 華嚴寺이니, 절 앞에 큰 溪川이 있는데, 계곡 동쪽에는 日留峰이 있고 서쪽에는 月留峰이 있으므로 月留山이라고 함. 가야산 해인사의 南山 第一峰도 月留峰이라 하는데 최치원이 지은 이름.

25) 浮囊 : 戒律을 지키려는 의지가 굳어야 한다는 教訓이니, 옛날 가죽 주머니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中間에 羅刹鬼가 나타나 浮囊을 자기에게 달라고 유혹함을 굳게 물리치듯 五欲의 유혹을 그와 같이 매섭게 물리치라는 교훈에서 온 말.

26) 景福元年 : 唐의 昭宗代의 年號. 신라 제51대 眞聖女王 6년(892)

27) 匡仁和尙 : 생물연대는 未詳. 唐末 5대 曹洞宗스님. 光仁이라고도 함.

드문 일이었으나, 東人中에 目語할 만한 사람은 오직 자네를 제외하고 또 누가 있겠는가.”하였다. 손을 잡아 法燈을 전하고 마음을 통하여 心印을 전해 준 다음, “그대는 盤桃山 곁에서 佛日을 도와 다시 중흥하고, 海隅의 국민을 잘 순화시키는 한편 禪法으로 인도하여 다시 넓힐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훌륭한 큰스님은 반드시 찾아가서 친견하고, 환경이 절묘한 聖地는 남김없이 참배하였다. 江西로 가서 老善和尚을 배알하고 그의 법문을 들으며, 그의 수행담을 듣고자 하였다. 和尚이 묻되 “白雲이 行人의 길을 봉쇄하며 차단하였구나.” 대답하되 “스스로 靑靑인 공중 길이 있거늘, 白雲이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화상은 대사의 변제가 민첩하여 조금도 걸림이 없이 자재하게 답함을 보고, 곧 인가하여 法을 전해 주고는 “남을 이롭게 할 자신이 생긴 연후에 떠나도록 하라”고 말씀하였다. 대사는 대봉새는 반드시 南溟에서 변하고, 학은 모름지기 東海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華夏에서의 구법을 마치고 桑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다. 마침 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만나 天祐 18년<sup>28)</sup> 여름 전주 臨陂郡에 도착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못할 정도의 위험한 시기였다. 그 당시 州尊인 도통 太傅甄萱은 군대를 통솔하여 만민이 보호하는 방벽의 堰城이었다. 태부는 본시 善行을 쌓아 장군의 집안에 태어났으니 바야흐로 웅대한 뜻을 펴기 시작하였다. 비록 일단은 대사를 체포하였다가 석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스님의 慈顏으로 접근하였으나, 존경하는 마음만 더욱 돈독해졌다. 그리하여 찬탄하되 “우리 스님을 만나기는 비록 늦었지만 弟子가 됨을 어찌 늦추겠는가”하면서 모시는 태도가 정성스러우며, 존경하는 마음 또한 돈독하여 전주의 남쪽 南福禪院<sup>29)</sup>에 주석하도록 초청하였다. 대사가 말하되 “새들도 장차 쉬고자하면 나무를 선택함이거늘, 난들 어찌 匏瓜<sup>30)</sup>처럼 매달려서만 있을리요”라 했다. 그리고 白鷄山 옥룡사로 갔다. 과연 그곳은 편안히 수도할 수 있는 淸齊이며, 또한 조용히 참선하기에 알맞은 성지였다. 구름은 溪上에 덮혀 있고, 돌을 베고 누워 흐르는 시냇물은 양치질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그러나 드디어 太傅의 초청을 받아 들어 그곳으로 移住하기로 하였으니 실로 뗏목은 이미 歸塘에 버렸고, 구슬은 다시 舊浦로 되돌아 왔다고 하겠다.

자비로 집을 삼아 중생을 교화하던 옛 스님들의 자취를 밟았으며, 智慧의 햇빛을 높이 들어 六途의 昏衢를 비추어 군생을 구제하던 高僧들의 餘輝를 계승하였다. 이때 絶學者<sup>31)</sup>들이 서로 경축하면서 말하되 “비록 년전에는

28) 天祐十八年：唐의 哀帝代의 年號. 신라 제54대 景明王 5년(921)

29) 南福禪院：全州 남쪽에 있었던 절 이름

30) 匏瓠瓜：표주박이 꼭지에 매달려 있어 가을에 익어서 딸 때까지 그 꼭지를 떠나지 못하고 붙어 있다는 말. 자그마한 故土에서 크고 넓은 世界로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

31) 絶學者：여기서는 禪學者를 지칭함

태산이 무너진 탄식이 있었고, 오늘에는 대중들이 양모할 대상이 없다는 슬픔이 없음을 기뻐하도다.”라 하였다. 이젠 존경하며 따르는 門徒가 번창하고 법문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대사는 약 스물네해 동안 雲水生活을 하면서 後生을 지도하였으니, 마치 거울이 物象을 비추되 전혀 피로함이 없으며, 梵鍾이 언제나 치기만 하면 울리는 것과 같이 隨問隨答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조리있고 정연하게 扶桑<sup>32)</sup>의 백성을 교화하였다. 淸泰 3년<sup>33)</sup> 가을에 이르러 우리 태조 神聖大王께서 몸에 갑옷을 입고 손에는 漢劍을 잡아 공손히 天罰을 행하되<sup>34)</sup> 海隅를 괴롭히는 자는 모두 소탕하고 三韓을 協和하였으므로 이에 四郡이 다시 태평한 군자국이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 또한 깊이 신봉하였다. 대사께서 西土에 가서 유학한 후 귀국하여 南山<sup>35)</sup>에 은거하고 있었으나,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寰區<sup>36)</sup>를 복되게 하였다. 이때 태조께서 淸風을 바라보고 白月을 첨양하듯 崇仰해 마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급히 芝檢을 보내 玉京<sup>37)</sup>으로 초빙하였다. 눈으로는 대사가 개경으로 왕림함을 보았고 귀로는 龍이 變化함을 들었다. 비록 僧伽에 귀의하는 儀禮이나 마치 부처님을 받드는 儀典과 같이 하였다. 대사는 달이 하늘을 지나가고 구름이 푸른 산 바위틈으로 돌아가듯 조금도 걸림이 없고 寂寂하게 葆光<sup>38)</sup>을 세상 밖으로 비추었고, 玄玄하게 域中에서 교화를 행하였다. 이른바 엄숙하게 위엄을 보이지 않으나 함이 없어도 스스로 다스려져 善道로 나아가고, 함께 福門<sup>39)</sup>으로 출입하도록 하였다고 이를 만하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태조 임금이 승하하였다. 마치 고기가 水藻下에 편안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라에는 하늘이 무너진 듯 탄식하였고, 咸池<sup>40)</sup>에는 日輪의 빛도 없는 듯하다. 의공대왕이 즉위하여 父王의 유풍을 받들고 先志를 계승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聖訓하며 법력을 빌어 孜孜하다가 문득 세상을 버리고 이미 天上으로 돌아가셨다. 이어 문명대왕이 王位에 올라 重光으로 꽃을 엮어 천축의 教風인 불교를 널리 퍼뜨리고, 거울을 잡아서는 海邦의 풍속을 비추어 순화시켰다. 왕은 鳳筆<sup>41)</sup>을 보내 스님을 왕궁으로 초빙하였고 衆軒으로 내려와 친견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龍集 協洽 4월 28일에 대사께서 열반에 들고자 하여 목욕한 다음, 대중을 방 앞에 모아놓고 유훈하되 “나는 이제 떠나려 하니 대중들은 잘 지내도록 하라. 塵俗에는 귀천이 있으나 空門<sup>42)</sup>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법이니, 水月처럼 마음을 맑게 하고 煙霞와 같이 고상하게 살도록 하라. 옷은 계절에 맞

32) 扶桑：東國인 신라를 가리킴.

33) 淸泰三年：後唐의 廢帝代의 年號, 高麗 太祖 19년(936)

34) 天罰：하늘을 가리키는 것. 즉 天罰 또는 하늘의 法網

35) 南山：全州의 남쪽 南福禪院을 가리킴

36) 寰區：封建時代에 있어 天子의 直轄區域인데, 轉하여 광범한 境界內, 또는 天下, 天地의 뜻

37) 玉京：서울 長安, 王都

38) 葆光：榮光을 감추는 것. 智慧를 쌓았으나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

39) 福門：佛門을 가리킴

40) 咸池：咸陽 또는 天池라고도 하는데, 太陽이 목욕한다는 天上의 못.

41) 鳳筆：임금의 親書. 즉 敕旨

42) 空門：佛門을 가리킴

추어 갈아 입지 말며, 음식은 두 가지 이상 하지 말며, 마땅히 고사리 등 풀 뿌리를 캐어 식량을 삼고 禪悅로써 포식을 삼을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나의 弟子이며 또한 나의 원에 적합할 것이요. 그 밖에 나의 道에 무슨 별다른 觀行이 따로 있겠는가”라 하였다. “또한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 너희들은 내가 죽거든 塔으로써 나의 遺體를 간직하거나, 碑를 세워 행적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또한 마땅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나의 玄福을 짓게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이 끝나자 마자 房에 들어가 승상에 기대어 가부좌를 맺고 앉아 儼然하게 玉龍寺上院에서 입적하였다.

슬프도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의 나이는 80세요, 보살계를 받은 지는 62夏였다. 이날 아침 玄武山 산정<sup>43)</sup>에 4~5명의 짓먹이 어린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태양은 香庭에 처참하게 비추고 바람은 寶刹을 슬프게 하며, 송백나무 또한 슬픈 빛을 띠었고, 人靈은 떨면서 두려워하는 소리를 내었다. 다음 날 영구를 백계산으로 옮겨 모시고 돌로 龕室<sup>44)</sup>을 만들어 시신을 그 안에 모셔 封閉하였다. 文明대왕이 부음을 듣고 슬픔을 금치 못하여 미리 살피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弔書를 보냈다. “故玉龍禪和尚은 조각달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고고하고, 孤雲이 한가롭게 날아가는 것과도 같이 조용하셨다.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보배로운 불교를 배우고 東國으로 돌아와 그 법을 전파하기 자비스러운 바람은 萬里의 변방까지 불었고, 禪定의 밝은 달은 九天의 밖에까지 비추었다. 이와 같은 분은 오직 우리 통진대사 뿐이시다.” 그러므로 시호를 洞眞大師, 탑호를 寶雲이라 추증하고, 國工을 시켜 돌을 다듬어 탑을 세우도록 하였다. 始工한 지 2년 후<sup>45)</sup> 문도들이 감실을 열고 神軀<sup>46)</sup>를 보니 얼굴이 生前과 같아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울면서 色身을 옮겨 백계산 동쪽 구름 덮힌 바위 위에 塔을 세웠으니, 이는 王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주위의 환경은 노을이 덮인 피가 병풍처럼 靑龍과 白虎로 둘러 있고, 구름이 자욱히 덮인 시냇물은 마치 거울과 같이 맑다. 진실로 偉人을 길러내는 神區이며,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는 秘宅이 될 만하였다. 대사는 계족산에 들어가 멸진정에 入定하여 慈氏인 미륵불의 출세를 기다림과 같으니, “스님의 추모사업을 내가 하지 않으면 다시 누가 하겠는가”라 하였다. 대사의 신기한 자태는 先天의으로 자연스러웠다. 仁行은 스스로 실천하고, 德行은 남에게 나누어주었다. 문하에 禪客은 莘莘하고 法孫은 濟濟하였다. 心燈은 계속 타올라 꺼지지 아니하였고, 행동은 아름다움을 전하였다. 전법제자인 큰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泉通

43) 玄武山嶺頭：白鷄山の北峯을 가리킴이니, 東峰은 靑龍, 南峰은 朱雀, 西峰은 白虎, 北峰은 玄武이기 때문임

44) 龕室：龕은 寺院塔下의 小室이니 碑石을 세우려는 장소의 基盤, 즉 基礎이고, 權은 權宜이니 바닥을 뜻함

45) 越二年：열반에 든 지 2년 후란 말이니 947년임

46) 毓慶之神區：경사스러움을 길러내는 神區. 곧 明堂이라는 말



禪師 등이다. 그들은 아픈 마음을 쥐어 잡고, 열반 직전에 보았던 스님의 얼굴을 추모하면서 서로 의논하되, “우리가 先師의 유언만을 고수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 만약 비석을 세워 勳跡을 새겨 두지 않으면 先師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여겨 비를 세우기로 하고, “尊祖하는 일로써 대사의 행장을 모아 왕에게 表狀을 올려 幼婦의 文章을 지을 수 있는 자에게 명하여 先師의 업적을 기록하는 비문을 짓도록 청하였으니 어찌 호곡하면서 슬피만 하랴”하고, 급히 비석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스님을 추억하니 門人들은 스님께서 벽계산 기슭에 자취를 감추어 다시 친견할 수 없음을 슬피하며 땅을 치며 애통해 하다가, 다시 혜원법사가 여산 동림사가 있는 虎溪에 자취를 감추었던 일을 기억하였다. 이러한 소문이 날날이 임금에게까지 들렸다. 곧 우리 上이신 정종임금께서는 瓊馨<sup>47)</sup>을 이어 받았을 뿐 아니라, 경사스럽게 瑤圖<sup>48)</sup>를 승습하여 祖業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先祖의 가풍을 빛나게 하고 항상 百行의 근본인 효도의 정성을 다하는 한편,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 더욱 돈독히 하신 분이였다.

드디어 한림학사인 臣 金廷彦 저에게 명령하시되, “故玉龍大師는 몸을 가짐에 있어서는 강한 절제력이 있었고, 心學의 道는 그 끝이 없었다. 중국에 가서는 迦葉의 玄宗인 선법을 전해 왔고, 靑丘인 본국에 돌아와서는 퇴폐한 풍속을 순화하였으니, 능히 靜利<sup>49)</sup>로써 人世를 이익하게 하였으므로 국민들에게 끼친 그 공적은 막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대사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모름지기 外孫<sup>50)</sup>의 비문을 지어<sup>50)</sup> 그 위업이 무궁토록 전하려 하니 자네는 마땅히 훌륭한 문장으로 대사의 공훈을 적어 비석에 새겨서 玄龕을 世世에 전해 보이며, 빛나는 행적을 生生에 드러내도록 하라”하시였다. 臣이 폐하의 명을 들으니 땀이 흐르고 뼈에 사무쳤다.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한 다음, “臣은 붓을 잡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絶妙한 문장으로 비문을 짓는 일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공중에 드리워진 실을 분간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오니, 청컨대 下命을 거두어 주시옵소서”하였다. 上이 이르되 “대저 사람은 義를 의지하여 행할 것이며, 仁을 당하여는 사양하지 말아야 하느니라”하였다. 臣은 하는 수 없이 왕의 명을 받아 들였으나, 용기를 다른 사람에게 끼쳐 줄 만한 餘力이 없다. 후일이 비문을 보는 사람들에게 공연히 빈축하거나, 비방함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니, 마치 서투른 木手가 손을 다칠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주상의 강하신 명령이 몸을 베어 내는 것과 같았기에 드디어 떨

47) 瓊馨 : 親王이니 親王이란 王의 親戚. 곧 伯叔, 兄弟, 姊妹, 王子, 公主등을 지칭함

48) 瑤圖 : 鴻圖 또는 丕圖와 같은 뜻. 先王으로부터 傳襲해 오는 아름다운 王圖

49) 靜利 : 물질적 이익이 아니고, 정신적 이익을 뜻함

50) 外孫之作 : 絶妙好辭인 黃絹幼婦外孫<sup>50)</sup>白中 外孫이란 곧 好의 뜻이니, 훌륭한 文章인 碑文을 지어달라는 부탁



리고 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억지로 붓을 잡게 되었다. 以上 비문의 뜻을 거듭 선양하려고 계송으로 읊는다.

佛陀의 교리는 심오하고도 미묘하며  
달마의 禪旨는 空하지 않음이 없네!  
道가 어찌 우리들의 마음밖에 있으랴!  
부처란 본시 중생의 心中에 있다네.  
지혜의 햇빛은 모든 중생 비취지고  
진리의 강한 바람 無明을 흩어준다.  
일찍이 내가 부처임을 깨달은 이는  
白鷄山 玉龍寺 우리스님 뿐이라네!(其一)  
높고 넓은 스님의 덕은 풀잎과 같고  
마치 우담발화의 꽃봉오리와 같아  
깊고도 아름다운 스님의 지혜광명  
글로나 말로선 표현할 길이 전혀 없다.  
撫州의 疏山<sup>51)</sup>에서 匡仁의 法을 이어받고  
正法眼藏 소중히 해동으로 전해 와서  
그 덕망 앙모하여 四方에서 모여들어  
문 앞에는 삼대처럼 긴 列이 섰도다.(其二)  
스님의 도덕을 말로는 說할 수 없어  
玄妙하고 또 현묘하여 비할 데 없다.  
사람을 教化함은 태양처럼 혁혁하고,  
佛道를 弘布함은 허공같이 끝이 없네.  
때때로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만나서  
지극한 마음으로 설법을 경청하였네!  
더 높은 그 명성을 견줄 사람 전혀 없고  
위대하신 그 업적 앞에서 비추고 있네!(其三)  
자비와 위력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드넓은 이 세상에 利他行 쉬지 않았네!  
열반에 드시니 달은 禪庭에 떨어졌고,  
치솟은 산봉우리 聖地를 무너뜨렸네!  
화려한 文章으로 비문을 지었으니  
芥城<sup>52)</sup>이 끝나더라도 이 비는 남아있어,

51) 疏山 : 撫州 疎山 匡仁和尙을 지칭함

52) 芥城 : 芥子劫의 城이란 뜻이니, 둘레 40리 되는 城中에 芥子를 가득 채워 놓고, 長壽天人이 3년 마다 한 알씩 가지고 가서 이 芥子が 모두 없어질 때까지를 一劫이라 한다.

비록 내가 지은 비문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나 오로지 사실만 直筆하였을 뿐.(其四)

顯德 5년<sup>53)</sup> 歲次 敦祥<sup>54)</sup> 세우고,  
門生 釋繼默은 글자를 새기다.

### 3. 光陽 松川寺址 悔隱長老碑

顯宗即位之十三年春三月五日八道都摠攝悔隱長老卒于星浮山之天柱峯下闕世 八十六坐夏七十一法 字應俊俗姓奇氏南原人悔隱其號也初奇無子母尹祈七星于智異山夢異光入懷娠長老焉少出家從玉暹老師落髮晚參逍遙浩然碧<sub>是</sub>諸大宗匠咸執弟子禮爲人魁貌而長身身雖係桑門志則慕經濟癸酉春湖南按廉聞其志署爲笠岩城將累果立功丙子冬清兵猝至湖南觀察使李公時昉起碧<sub>是</sub>大師爲義兵僧大將老從之參謀以助兵勢明年丁丑夏以募義功加資折衝授兩湖都摠攝至丁亥春陞嘉善爲八方都摠攝居南漢辛卯冬 朝廷又以營築南雍城益嘉其功陞嘉義庚子冬陞 資憲爲僧大將癸卯 夏特加正憲其在任也執導帶帳獨前堅施澹擁償<sub>異</sub>驅馳軍務間者三十年許其平居也或時治盛脈衣冠簪組皆綺<sub>續</sub>金玉之屬出入乘<sub>馬</sub>統<sub>綬</sub>鞞<sub>鞞</sub>鷹<sub>鷹</sub>游纓伴擬宰臣無敢<sub>諂</sub>若古所黑衣之傑長老之謂也財產亦甚鉅每於親舊貧病多所施舍不<sub>恤</sub>畜蓋有悲濟之道也其徒前摠攝處祥念知廣學等侔玉 清此走五百里乞銘於白谷處能曰我師生有顯也死無銘則恐沈泯不傳且守禦佳息菴金相公錫胃氏遺以熟鐵百斤用助鑄<sub>鑄</sub>之具重愛我師之<sub>勳</sub>勤國事故也光陽之白雲卽我師少日發跡之地也將具一片石刻之樹山阿令後世知有我師則生死俱有顯也而於吾心亦無<sub>慙</sub>然知我師者莫如君君亦能爲文文堪上石<sub>盍</sub>爲銘余於長老爲法弟又何忍不銘故應曰諾爲之辭曰

奇之氏系世家帶方初無胚胎脫有禎祥山岳降靈夢忍驚姜形徒出世志慕魁顏廣眉白而身長國步難危隣敵強梁虎豹相<sub>嚙</sub>民士勸<sub>勸</sub>長老參謀從橫戰場朝廷褒賞兩湖金章俄而陞秩統攝八方窶<sub>窶</sub>戟纛州載<sub>徬</sub>祥平居坐起衣服爭光冠帶簪笏金玉其裝出入遊行青馬<sub>恩</sub>紫<sub>纁</sub>於古有之黑衣賢良財累雖鉅拂<sub>盍</sub>傾

53) 顯德午年：後周 世宗代の年號。 고려 제4대 光宗 8년 (958)

54) 敦祥：祥은 祥의 誤字. 顯德5년은 958년 戊午年이므로 舊甲子에 戊는 著雍이고, 午는 敦祥이므로 著雍 2字가 脫落되었음



사진3-20 : 광양 송천사지 회은장로비

箱曰有神乞銘遑遑訪我于北數百里強南之瀋縣曰光陽樹石係文百歲惟芳

〈제문〉

(※ 비문의 마모가 심하여 확실한 내용은 번역이 불가능하다.)

회은장노의 행적은 비문에 의하면 그의 선대는 남원에 거주하였고 그의 속성은 기씨이며 자는 응준, 호는 회은이라 하였다. 어려서 출가하여 옥지 노사가 머리를 깎아주어 승려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인조 14년(1636) 청나라 군사가 우리나라에 침입하였을 때 전라순찰사 이시방이 관군을 동원하자 이에 호응하여 벽암대사가 승병을 일으키자 회은은 참모로 활약하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높이 사서 절충과 양호도총섭을 제수하였고 인조 25년(1647)에는 지립지공으로 가선대부와 팔도도총섭을 받았다. 현종 원년(1660)에 자헌에 가자되고 승병대장이 되었으며 현종 4년(1663)에 정헌으로 특별히 가자를 받아 군무에 재임하였으며 1672년에 열반하였다.

이 비는 음기에 의하면 순찰사 박신규와 당시의 광양 현감 안시익 숙종 3년(1667. 8~11월 재임), 그리고 송천사의 협동으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의 건립연대는 말미에 「皇明崇禎丙子後四十二年丁巳月日」 이라 한 것으로 보아 숙종3년(1667)임을 알 수 있다. 음기는 비 건립에 참여한 순찰사와 광양현감 외에도 본사질 · 각수 · 도편수 · 연화질 · 도감 · 삼강 등의 명록이 있다.

전액은 회은장로비명, 비명은 「有明朝鮮國全羅道光陽白雲山松川寺址正憲大夫八道都摠攝兼僧兵大將悔隱長老碑銘」이다. 비는 이수와 비신 그리고 좌대로 이뤄져 있는데 이수의 전면에는 쌍용이 여의주를 가운데 두고 희롱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후면에도 용이 비롯하여 게, 개구리, 자라 등이 새겨져 있다. 비신의 비문은 대체로 판독이 가능한 양질의 돌을 사용하였다. 다만 비신 여러 곳에 탄환 자국이 있으며 비의 모서리는 농부들이 밭을 갈아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

비명의 승려의 범명이 아닌 회은이란 호를 썼던 것은 회은이 승려로서 평가되기보다는 오히려 승병대장으로 더 유명하였던 것에 기인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비의 이수에 용을 비롯한 동물들의 조각이 비교적 섬세하게 되어 있으며, 승려를 낮게 평가하는 조선시대에 순찰사나 현감이 비의 건립에 앞장서는 점도 주목된다.

## 4. 鳳陽祠 事蹟碑

宋穉圭 撰

書院者 士子藏修遊息之所 而建祠以祀前賢所以瞻依而矜式也 湖南之光陽 濱海小縣舊無書院 萬曆年間 知縣鄭侯淑男 祀鄉賢新齋先生崔公諱山斗 前政 認齋先生朴公諱世煦 于縣學之傍 於是 縣之業於儒者有所依歸 旋值倭亂 見燬于丁酉 蓋二公皆巳卯人 新齋公 靜菴趙文正先生所友 而認齋公 攝衣於文正之門者也 噫 新齋公之生長是邑 彙征<sup>1)</sup> 于巳卯而與趙文正 同其始終其爲是邑之光華 顧何如若認齋公 佩符於是邑 盡心學政 大闡儒化豈非所謂君子學道者耶特祀二公 以興起士林 可謂知先務於政化之要矣 惜乎無以詳鄭侯之本末也 亂後幾年邑之章甫 狀于營邑 而復設 獨享新齋 而認齋不與焉 事在久遠 固未知其何故如是而一 體尊奉之地 舉錯頓異 宜爲有識之所嗟惜 而新齋英靈 亦豈不 悵失於薦享之際也今上戊子 以祠宇頽圯 改而新之 士論峻發欲於還 安日復 認齋 遠近響合莫不欣聳嗚呼 觀於人事而神理亦可推矣 主其論者鄭君漢基 任其事者 徐君顯斗 徐君以其王父潤和 嘗致誠力於院事 不憚勤勞 以趾其美云 認齋族裔

朴君禎一 久從我遊 以多士意 來求 認齋 文且曰 將其顛末刻石 以示後願賜一言 以重之 余以不文 辭不獲

遂略識之如此 祝

純宗 戊子 剛齋 宋穉圭 撰



사진3-21 : 봉양사 사적비

1) 彙征 : 함께 가다.

## 4. 봉양사 사적비

송치규 찬

서원이라 하는 것은 선비들이 공부하고 노는 곳이며 사당을 세워서 전현(前賢)들을 제사 지내 침앙(瞻仰)하고 공경하는 곳이다. 호남의 광양은 바닷가의 조그마한 고을로 옛적에는 서원이 없었는데, 만력년(萬曆年) 사이에 고을 현감 정숙남(鄭淑男)이 이 고을의 향현(鄉賢)인 신재(新齋) 최산두 선생(崔山斗 先生)과 전정(前政) 인재(認齋) 박세후 선생(朴世煦 先生)을 현학(縣學) 옆에 제사 지내니 이로써 이 고을의 학업하는 유자(儒者)가 의귀(依歸)할 바가 있게 되었다. 과거 왜란을 만나 정유년에 불탔으니 대개 두 분은 모두 을묘 때의 사람으로, 신재공은 정암 조문정(靜菴 趙文正) 선생과 친구이며, 인재공도 문정의 문도(門徒)이다.

아! 신재공이 이 고을에서 나서 자라 기묘사회에 함께 나아가 조문정과 시종을 같이하였으니 이 고을의 빛이로다. 돌아보건대 놀랍도록 훌륭한 분이시다. 인재(認齋)공은 이 고을에 부임하여 학정(學政)에 마음을 다하여 크게 유교화하고 천명하였으니 어찌 군자가 도를 배움이라 아니하겠는가, 특히 두 분을 제사 지내서 사림을 흥기케 하였으니 정화(政化)의 요체(要諦)에 먼저 힘쓸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깝도다. 정후(鄭侯)의 본말이 상세하지 않음이로다. 난이 일어난 후 몇 해만에 고을의 유생들이 영문과 고을에 장계를 올리어 복설하였으나 홀로 신재만 향사(享祠)를 지내고 인재는 참여하지 아니 하였으니 실이 오래되어 참으로 어찌하여 이와 같이 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함께 높이 받들어야 되는데 거조(擧錯 : 쓰는 것과 버리는것)가 완전히 달리 되었으니 유식자가 슬퍼하는 바이고 신재의 영혼 또한 흠향을 슬퍼하지 않았겠는가, 지금 사우가 쓰러지고 무너져서 새로 보수함에 사론(士論)이 준엄하게 발기되어 다시 봉안(奉安)하는 날에 인재의 제사를 함께 지내고져 원근(遠近)이 지지하게 되어 누군들 기뻐하지 않았는가? 아! 사람이 정으로 미루어 보아 신의 이치를 추측할 수 있도다. 의론을 주도한 분은 정한기군이며 일을 책임진 분은 서현두(徐縣斗)군이다. 서군의 조부인 윤화(潤和)가 일찌기 원사(院事)에 성력(誠力)을 이루어 노고를 꺼리지 않았으니 서군이 조부의 뒤를 아름답게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재의 후예인 박정일군이 오래도록 나를 좇아 배웠는데 많은 선비들의 의사로 향사할 것과 또 그 전말을 비석에 새겨서 후세에 보이기 위하여 원컨대 한 말씀하여 주시오 하니 내가 글을 하지 못하지만 사양하지 못하여 간략하게 이와 같이 기록하노라.

순종 무자(1828) 강제 송치규 찬



## 5. 水月亭記

松江 鄭澈

士大夫之進不得有爲於斯世 棄位而巷處者必占名山麗水之濱池館園囿之樂 一以爲清閒寂寞之娛 一以舒憂時戀闕之情 歐陽公之瀕上 杜祈公之睢陽皆是已 前錦牧光山後人鄭侯 年五十而棄於世也 遂求先大夫玉川先生之別墅於光陽 距先廬四十里而居之 選築亭名曰水月 余觀夫南方之山 巍然高者 以千數而白雲最奇 南方之水可勝舟者 以千數而蟾江爲最大 以白雲之東麓爲屋上 而以蟾江之上流置屋下 則形勝有不



사진3-22 : 수월정 유허비

可論也 而況天下之三神山方丈 居一 烟火食者之生世間 聞此山之名者 赤罕矣 其於起居飲食 早夜相對爲如何哉 左嶺右湖 拱引島巒 來船去輶雲飛而鳥逝官津野墟魚鱗而輻溱 渭川千畝業水朱華 鶴洞朝嵐 岳陽暮煙 踰岷蜀或山火雲成峯 霜落而千林紅 水塞而長川白 千態萬象 畢集於凡房之下 則水月之所以選勝也 兵火十年 文物一空 而水月則低舊也 世降俗末人心不古 而水月則猶昔也 市道日巧一錢且踊而水月則無價也 棄枯集苑門雀可羅而水月則不遐也 逝者如斯而未嘗往也盈虛者如彼而 卒莫消長也 浮光躍金 靜影況碧 而水得月而益清 月得水而益白 直與侯之魯次瑩澈 而同符焉 則月水之所以命名也余雖不獲登侯之亭 頌侯之歌見侯之書粗得水月之萬 一而若信之方寸 則余固知己故於是乎書

5. 수월정기<sup>1)</sup>송강 정철<sup>2)</sup>

사대부가 나아감에 이 세상에 쓰임이 없으면 벼슬을 버리고 향간(巷間)에 처하는 자 반드시 명산과 여수의 가(濱)를 택하니 지관(池館)과 원유(園囿)의 즐거움이 있거나 청한(淸閒)하고 적막한 즐거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때를 근심하여 고운님을 생각하는 정을 갖게 되니 구양공이 영상에 있었던 것과 두기(杜祈)공이 회양에 있었던 것이 모두 이러한 예이다. 과거나 주목사 광산 후인인 정후가 나이 50에 세상을 버림 당하여 드디어 선 대

1) 多鴨面 道士里에 있었던 정자. 현재는 遺墟碑만 남아있다. 光陽人으로 선조시 羅州牧使를 지낸 鄭澈이 만년을 소일할 뜻으로 세웠음.

2) 1536년(중종31)~1593년(선조26) 선조 때의 名臣·文人. 字는 季涵, 號는 松江. 1562년 文科에 급제함. 西人의 거두. 당파싸움 사이에서 한때 우의정까지 올랐으나 수차의 유배를 당함. 1592년 임진왜란을 당해 귀양에서 풀려나 관직에 있다 江華에서 병사했다. 그 가 지은 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 星山別曲, 將進酒辭 시조 70여수 松江歌辭 등은 지금도 전하는 국문학사상의 일품들이다.



부 옥천선생의 별장이 있는 광양에서 거하였다. 선려(先勵 : 조상의 여막)와의 거리가 40리 떨어진 곳에 살아서 정자를 지어 수월(水月)이라고 이름하였다. 내가 보건대 남방의 산이 위연(巍然)이 높이 솟은 것이 그 수가 천개를 헤아리나 백운산이 가장 기이하고 남방의 물이 가히 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이 천개를 헤아리나 섬진강이 가장 크다. 백운산 동쪽 능선을 옥상으로 삼고 섬진강의 상류를 옥하로 삼은 즉 경치에 대하여는 두말할 나위 없다. 하물며 천하의 삼신산에 방장(方丈)이 그 하나이니 불을 때서 밥을 지어먹는 사람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 이 산의 이름을 들은 자가 또한 드문데 거거서 기거하고 마시고 먹으며 아침저녁으로 상대하니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는가? 왼쪽은 영(嶺)이며 오른쪽은 호수라 섬과 산봉우리를 껴안는 듯 당기는 듯 하며 배는 왔다 갔다 하고 구름은 높이 떠있고 새는 날아다니고 나루터 주변 터에는 고기떼들이 모여들고 섬진강(내)은 넓게 흐르고<sup>3)</sup> 붉게 빛나는 학동(鶴洞)의 아침 아지랑이와 악양(岳陽)의 저녁 연기와 철쭉꽃이 붉은 산을 이루고 구름이 봉우리를 이루어 서리가 내리면 모든 숲이 붉게 물들고 긴내가 얼음이 얼면 희어지니 천태만상이 모두 방(房) 아래서 보게 되니 수월의 터는 이러한 경치를 선택하여 지은 것이다. 10년 간의 병화(兵火)로 문물이 모두 잿더미가 되어 없어졌으나 수월은 의구하구나. 세월이 흐를수록 풍속이 야박해져 인심이 옛과 같지 아니하나 수월은 옛과 같구나. 장사치의 방법이 날마다 교활하여 물가가 날로 한 푼씩 올라가나 수월은 값이 없다.

세월에 따라 운명이 변하여져서<sup>4)</sup> 문전이 적막하나<sup>5)</sup> 수월은 멀리하지 아니하였도다. 흐르는 것이 이 물이나 계속하여 흐르고 차면 기우는 것이 저 달이로되 마침내는 그대로 있도다. 달빛이 비추니 금빛이 출렁이며 그림자는 잠겨서 둥근 옥과 같으니 물은 달을 얻어 더욱 맑고 달은 물을 얻어 더욱 희니 곧 후(侯)의 가슴이 맑고 투명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즉 수월로 정자이름을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비록 후의 정자에 오르지는 못하였으나 후의 시가를 칭송하고 후의 글을 보고 수월의 만분의 일이라도 대략 알게 되었으니 마음 속으로 믿고 있으며 또 내가 이미 옛부터 후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이에 쓰노라.

3) 渭川·霽水 : 중국에 있는 유명한 하천. 강물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섬진강(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료됨.

4) 棄枯集苑=棄字는 諫인 듯 하다. 集苑集枯를 변형한 것으로 茂木과 枯木에 모이는 경우가 다르듯 경우에 따라 운명이 같지 않음을 말함.

5) 門雀可羅=門前雀羅張 또는 門外可說雀羅의 변형이다. 즉 문앞에 새그물을 친다는 것은 문앞이 적막하다는 뜻.

## 6. 大山嶺參判公墓碑文謄抄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知義禁府事金公墓表公諱汝瀆字汝行號海隱系出金海駕洛王首露后生員諱鍊六世孫也高祖諱漢城贈通禮曾祖諱嗣祖祖諱克福禦侮將軍贈通政考諱湜武科錄振武原從勳贈戶曹參議妣貞夫人羅州羅氏德載之女以宣廟丙午八月初一日生于靈巖西九音坪之第序居次也天性耿介峭直有慨然氣節



사진3-23 : 광양 김시식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3호: 1987. 6. 1)

伯氏清心堂公嘗訓公曰吾門昌大者必在弟之忠孝公悅服其訓而常義氣凜凜矣甲子适賦之變從父公鞍峴之役見其父殉節與兄冒失而入負屍哀號而出敵義之不敢逼乃隧之口側以報其讎丙之難亦與兄赴安牛山倡義之旅追其三從汝浚之後至清州聞和成痛哭而歸兄弟遯跡於長興冬栢洞數年後公獨浮海而庚辰春遂隱遯于本縣仁湖伴鷗寓樂始殖海衣不求名利教訓子孫以終餘年庚子三月十五日卒壽五十五葬于所居大山嶺西坐原 當廟辛卯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知義禁府事配貞夫人礪山宋氏父啓善丙午生丙寅九月二十日卒壽八十一墓附左雙封有二男一女長世龍次顯龍女適河汶世龍男命岵命岵顯龍男宅堂大堂嗚呼以公殊異之姿兼忠孝之勇冒失負屍而使賦寇感激于衷又發海衣而俾世人以調滋味真可謂罕世之識見也歟日金君始鳳抱家狀訪余謁其曾祖考表阡之文余有不可辭者而見恂恂有古貌其亦遺教猶有存後之論世者亦將有感於欺公也甲午仲春下澣光陽知縣金海許鑰撰

「대산등 참판공 묘비문 등초」는 광양이 해태시식지임을 말해주는 처음 문헌자료로써 이 비문 등초(원본에서 옮겨 베껴 쓴 글)는 이 비의 주인공인 김여익(金汝瀆)의 5대손인 태혁(太赫)의 수기(手記)에서 발견하여 그 수기를 발췌한 것으로 비는 어느 뎨가 없어지고 비문만이 남아있다.

이 비문은 1713년 3월~1714년 9월(숙종39년~40년) 사이에 광양현감을 지낸 허심(許鑰)이 김여익(金汝瀆)을 기려 쓴 것으로 김여익(金汝瀆)은 1606~1660년 사이에 생존한 인물이므로 위 비문은 그가 이미 죽은 후에 이곳에 도입한 허심(許鑰)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비문은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여익(金汝瀆)은 병자호란 때

의병을 거느리고 청주에 이르렀으나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뒤 고향을 떠나 장흥 동백동을 거쳐 인조 18년(1640)에 광양 태인도(인호도)에 와서 은신하여 20년간 독서를 즐기며 여생을 보냈는데 그동안 그는 해의(海衣)의 양식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비문의 내용에 따르면 김여익(金汝瀾)이 김양식법을 고안한 것은 그가 태인도에 들어온 1640년부터 1660년 그가 죽기 전까지의 시기가 된다. 광양사람들은 해의(海衣)가 김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김의 양식을 최초로 창안한 김여익(金汝瀾)의 성씨를 딴 것이라고 믿고 있다.(1817년 정약용이 쓴 경세유표에는 김을 짐(朕)으로 쓰고 있다.) 이 비문에 따르면 광양이 완도보다 김양식이 164~174년 빨리 시작된 셈이다.

원래의 김양식지는 광양제철이 들어서면서 자취를 잃게 되었고 김시식지에 있는 김여익(金汝瀾) 제각만이 옛 흔적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 7. 討平事蹟碑

幸州 奇正鎮

己巳三月二十四日 流賊乘夜五更 舟入光陽縣 城陷 城內一空 太守尹侯 遜于七星里村民家 收率吏民 翌日曉頭 入城 賊徒槍死者三人 被捕者二十餘 分遣軍校四面 捕散逸者 前後所捕七八十人 而我民無傷損全羅監司狀啓 本月二十五日 曉頭 光陽縣監尹榮信 率吏民數千 冒弓炮入城 捕賊還得印符事 盖侯以失城 先已狀罷也 傳曰近以凶賊滋擾 爲南民深切憧憧 卽此前 倅之 倡率吏民 克復城池 剿捕賊黨 苟非中心剛 毅見孚吏民 何以至此 縣監尹榮信姑先仍任 撫恤經怯之民 四月初八日 又以大臣 筵奏特加候通政階 始侯之當罷去也 縣民忘賊平之喜 而惜候之去 及候仍任 民喜之若賊新平 又靈光郡守南公廷龍 以按察使 嚴明 罪人輕重斯得一境大安 鄉之多士始乃收拾驚魂記其首末爲討平錄一部 又以爲不被之金石 無以示久遠 著盛蹟 石既具伴其鄉秀士黃鶴模來請銘於正鎮 正鎮之居與光陽間數百里 隔鉅山長川 雖謂痛痒不相 及可也 而方賊之未 剿也 束伍調發軍書方午 鷄犬亦不得寧 私心 竊計 日月昭明安有 特地 魑魅 必知理窮勢孤 當卽就擒 滅而見現曰 消若是之神速 又匪夷所思目下騷擾 霍然 霧除 尹侯之功 蒙被者豈徒一邑光陽哉 是以 不能以老廢文墨固辭侯之所與定計者 鄭世俊



사진3-24 : 토평사적비

張濟連 尹秉澳其功皆光民所不忘 侯之子 方垂<sup>1)</sup> 侯被辱時 罵舌甚勁 賊徒義之云銘曰 姦究竊發 遂古靡憑 萑蒲以降 渤海廣陵 眉巾之<sup>2)</sup> 儔寔繁亂萌 其起蟻穴 流或滔天 莫曰一里後或燒原 斷根在早 奪人貴生 侃侃尹侯於民則良 茲我雖淺 惠我何長 何來狂狡 乘夜不備 黑月淺港 有百其類 城柝先警 牙門 缺守倉卒符金 不由侯手 于以遜之七星之里 始垂終奮石<sup>3)</sup> 有土 士民雲集羅伏三垂 夜鼓欲啞 壯喊似唯 竹槍呈利 狡心先死 駢首就<sup>4)</sup> 縛 若圈中豕 逃民下山海 塹<sup>5)</sup> 清 太守不有 歸之王靈 天覆地載 蕩蕩何名錄石通衢 以告來許 同我黔黎 永寧疆圍

(誤字가 더러 있는 듯하다. 數本의 拓本을 떠서 서로 대조하여 더 이상 碑가 마멸되기 전에 精確한 碑文을 남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성지

## 7. 토평사적비<sup>1)</sup>

행주 기정진<sup>2)</sup>

기사(己巳 : 1869년) 3월 24일 때를 지은 도적들이(流賊) 야밤 5경(새벽 3시~5시)에 배를 타고 광양현에 들어오니 성이 함락되어 성안이 텅 비었다. 태수(현감)인 윤후(윤영신)가 칠성리 민가로 우선 피신하면서 이민(吏民 : 향리와 주민)을 모아 거느리고 이튿날 이른 새벽에 성에 들어가서 적의 무리를 무찔러 죽은 자가 세 사람이고 체포된 자가 20여 명이라고 군교(軍校)를 사면으로 나누어 보내어 흩어져 도망한 자를 체포하니 모두 70~80명을 체포하였는데 우리 백성은 손상됨이 없었다.

전라감사가 올린 장계에는 「3월 25일 새벽 광양현감 윤영신(尹榮信)이 이민(吏民) 수천을 거느리고 활과 포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 적을 체포하고 인부(印府)를 되 얻었다」 라 하였다. 말하자면 현감 윤영신이 성을 잃은 뒤에 감사가 먼저 장계를 올리어 윤영신을 파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교에 가로되 「근자에 흉한 도적이 요란함을 더하니 남쪽 백성으로 하여금 심히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즉 이것은 파면당한 현감이 인민을 인도하고 거느리어 성지(城池)를 회복하고 적당(賊黨)을 무찌르고 잡았으니 진실로 마음이 굳세고 인민에 신의를 보이지 아니했던들 어찌 이와 같음을 이루었겠는가! 현감 윤영신은 책임감을 느껴 환난을 겪은 백성을 어루만졌다.」 라 하였고 4월 8일에 또 대신이 윤현감을 특별히 통정의 계급에 더 할 것을 아뢰니 이것은 후(侯 : 윤영신)가 광양 현감직을 그만두고 간 까닭이다. 고을 백성은 도적을 평정한 기쁨을 잊고 후가 다시 부임함에 있어서는 도적을

1) 討平碑는 1869년 3월 24일 일어난 광양민란을 집압한 당시 縣監 尹榮信의 공적비이다. 현재 광양읍 유당공원에 서 있다.

2) 1798년(정조22)~1876년(고종13) 자는 大中 號는 蘆沙, 성리학 6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새로 평정한 것 같이 기뻐하였다. 또 영광군수 남정룡(南廷龍)이 안핵사(按察使)로 와서 일의 실상을 조사하여 옥사를 확실하게 엄하고 명확하게 죄의 경중에 따라 처리하였으니 고을이 편안하였다. 많은 선비들이 비로소 병난에 놀랐던 정신을 되차리게 되었으므로 그 전후를 기록하여 토평록(討平錄)이라는 책을 한 부 만들고, 또 금석(金石)에 기록지 아니하면 오래도록 훌륭한 공적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돌을 이미 준비하여 놓고 그 고을에 수사(秀士)인 황학모(黃鶴模)를 시키어 나에게 와서 명(銘)을 구하니 내가 사는 곳과 광양은 수백 리나 떨어져서 큰 산과 긴 시내가 막히어 비록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으나 바야흐로 도적을 토벌하지 아니하면 군대를 모집하고 파송하고 하며 그 시끄럽고 바쁨에 한낮에도 닭과 개조차 편안함을 얻지 못한다. 나의 생각으로 계산하니 해와 달이 밝게 비추어 어찌 여기 뿐이겠는가. 특히 망령된 저 도깨비<sup>3)</sup>가 스스로 궁하고 형세가 고립되어 곧 나가서 사로잡히고 멸함을 당할 것을 알았으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신속하게 소멸된 것은 비적들이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지금의 소요함이 별안간 안개<sup>4)</sup> 개이듯 하였으니 윤후의 공을 입은 것이 어찌 한갓 광양 한 고을만 이겠는가! 이리므로 늙긴 하였지만 기(記)를 쓰는 것을 사양할 수 없도다. 후와 함께 계책을 정한 자는 정세준(鄭世俊)과 장제련(張濟連)과 윤병오(尹秉澳)이라 그 공로가 광양백성으로는 모두 잊을 수 없는 분들이다. 후의 아들이 바야흐로 칠팔 세가 되었을 때 후가 옥을 당한 것인데 그의 아들이 강경하게 꾸짖으니 도적의 무리들이 의리라고 하더라. 명하이 가로되 간사한 도적이 몰래 날뵈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증빙(證憑)할 것조차 없네. 늙거나 못가에서 숨기 시작한 도적이 발해하여 아득한 바다로 뺏었네. 곧 황건의 무리가 어지럽게 한 것이 짝이어서 그 작은데에 일어나서 마침내 하늘에 넘치도다. 한 지방만 그럴 것이라 하지 마라. 뒤에 가면 자꾸 뺏으리라. 빨리 뿌리를 뽑아야하니 그러지 아니하면 사람의 귀한 생명을 빼앗느니라. 굳센 윤후는 백성에게 어진 분이시다. 우리 고을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은혜로움 끝이 없어라. 어디서 온 교활한 도적들이 대비하지 않은 밤을 틈타 흑월(黑月 : 3월 15일 이후)에 뱃길 열은 곳으로 상륙하여 갖가지 못된 짓을 자행했네 성의 목탁이 먼저 경계하나 아문(牙門)<sup>5)</sup>에서 수비가 허술하였네. 창졸히 당한 일이라 병부는 후의 손에 없었네. 우선 피난처인 칠성리로 내려와서 마침내 분격하여 사민(士民)과 함께 큰 계획<sup>6)</sup> 세웠도다. 사민이 운집하여 삼중으로 포위하였네 밤에 북을 치지 아니하였

3) 이매(藪魅)=山林에서 생기는 도깨비

4) 광연(靄然)=급한 모양

5) 아문(牙門)=관청

6) 석화(石畵)=큰 계획



는데 장사들의 고향소리가 북을 치는것과 같았다. 대나무 창이 뾰족하니 교활한 적의 기세 시들어졌네. 머리를 가지런히 하여 죽음에 나아오니 우리에게 갇힌 돼지모양 같구나. 무서워 도망친 백성이 산에서 내려오니 조용한 바다 처럼 평정을 되찾아 맑아졌도다. 현감은 자기 공로라 아니하고 상감의 은혜로움이라 하네. 하늘이 덮고 땅이 떠받든 것 같은 넓디 넓은 마음으로 비석에 공을 새겨 거리에 세워 후세에게 알리세.

변방고을(광양)이 영원히 평안하기를!

### 8. 新齋 崔先生 神道碑銘 並序

嗚呼己卯斬伐之禍尙忍言哉 歲月既久而學士大夫至今 讀諸賢傳莫不扼腕雪涕此其故何哉明良相遇 千載一時朝唐暮 虞翹足可企而 羸豕之孚終乃 剝床及膚則扶 一線之脉者視鉄爲華袞起 嶺海如樂地若 新齋崔先生當時諸賢之一耳 先生以甲子司馬 中宗癸酉登文科除 弘文館著作仍陞 博士歷司諫院正言復入玉堂爲修撰 內賜玉笏有八字銘曰 一人有慶寶命維新 朝野榮之俄移 司憲府持平諫院獻納 吏曹正郎己卯以 掌令遷議政府舍人兼 經筵侍讀官當是時也自 上敦尚儒術諸賢 彙征治具畢張先生與 趙靜菴先生同心合力將以天德王道比隆三代 劈義利之界明淑慝之別究興衰治亂之原毫分 縷析明 巽 切或 朝講而至曰 晨上頗傾聽焉 羣奸尺目飛以危 語靜菴首被其禍自是 阮 奔益深 羅益 密三木囊頭 繫屬於道路而 先生亦有同福之行矣 謫居凡十五年李公俊慶具 公壽聘極言於 上遂蒙賜環未幾遭內艱哀痛傷生 卒於丙申四月十四日享年五十四葬在 光陽縣鳳岡坊 月谷負良原舊碑 刻缺後承鍾秀峯秀 將易石而新之 乞不 佞語不 佞雖不文亦 粗具 彞性者豈忍終 辭按狀而序之曰 先生諱山斗字景仰 高麗文肅公諱龍宮封八溪子孫 仍貫云以司憲府執義 奇淵爲曾王父同知中樞府事 諱思文爲王父而漢城府判尹 諱漢榮其考也 妣貞夫人清州韓公敬澹 女成化癸卯四月生 先生有星祥焉舞勺之齡能通經傳稍長入 光陽巖穴讀紫陽綱目其後私淑於 佔 俾寒喧兩先賢門 路既正踐履益篤以育英才爲己任 河西金文正公眉巖柳文節公出於門牆其有源 有流固如是也 配徐氏籍利川父主簿 克綏生與先生同庚卒 先先生九年葬與先生同原 懿範多可紀舉二男曰丙吉校籍曰丁吉通德郎校籍男原從功臣 贈參議宗元通德男宗亨 曾玄以下煩不錄嗚呼 先生



사진3-25 : 신재 최선생 신도비

大節有耳者咸聽之 有啄者咸誦之然 徵信於無窮莫如大賢之 筆略撮河西侑  
 文而 附之若曰高山大壑龍虎之姿長身美鬣 神骨魁奇其儀表可知矣又曰 偃  
 仰流波天絕 砥柱豁然雄放風月襟期其雅量可 知矣又曰詞傾三峽悠揚行草其  
 文藝可知矣又曰 遭時勇往許身 皁纒其經綸可知矣又曰 忘懷得喪尚 念魏闕  
 爰及高堂白雲遙思其天性之 發於聲容者可知矣是可以銘也辭曰 祥星毓精篤  
 生名碩姿既超 邁學專窮格坦步正路 有繩有尺符彩映帶如圭如 璧早年蜚英  
 逋朝籍王曰 嘉乃擢登經席左典右謨 煒煜細繹挽回三代 匪朝即夕噫彼羣  
 狂 噬毒螫氣熾日熾北門夜關儒衣儒 冠交受鋒鏑鯨波虎窟南竄北謫 八方崩心  
 萬姓 虓魄蘿川之上游泳自適處坎如 亨銀山鍊壁愛 君一念貫于金石覆盆回  
 光丹書追白山 顏在即民不蒙澤瞻彼鳳岡上干穹 碧大書深鑿先生之宅先生歿  
 后三百八十六年

重光作 靈鳴 前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  
 安東 金 寧 漢 撰

### 8. 신재 최선생 신도비명 병서

- 1) 나무를 찍어냄, 죄인을 참형(斬刑)에 처함.
- 2) 영시지부(靈豕之孚) : 「周易」천풍괘(天風卦)에 나오는 말로, 야원 돼지가 우리에게 감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형상인데 이 괘는 소인(小人)의 세력을 구축해 버리고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때, 뜻하지 않던 곳에서 재화(災禍)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
- 3) 박상급부(剝床及膚) : 「周易」산지박괘(山地剝卦)에 나오는 말, 좀벌레가 침상을 갉아먹기 시작하여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살갓에까지 좀이 미쳐 가는 형상으로 위험이 절박한 지경에 다다랐음을 의미
- 4) 옛날에 형구(刑具)로 쓰이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
- 5) 화려한 곤룡포
- 6) 산등성이와 바다, 곧 험하고 먼 유배(流配)길
- 7) 즐거운 땅

오호라 기묘년 사화(己卯年 土禍)의 그 혹독했던 참벌(斬伐)<sup>1)</sup>의 화(禍)를 차마 어찌 말하랴. 그러나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되 학사(學士)·대부(大夫)들이 오늘에 이르도록 그때의 제현(諸資)들의 전(傳)을 읽는 이마다 분격해서 팔을 내두르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는 대체 무슨 까닭인가.

대저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천년(千年)에 한 번이나 있을까 하는 일이다. 이로써 온나라가 아침은 요(堯)임금의 치세(治世) 같고 저녁은 순(舜)임금의 치세(治世) 같게 되기를 받든움하여 서서 바랬건만, 그리하여 실제로 이러한 요순(堯·舜)의 치세(治世)를 눈앞에 두고 뜻하지 않게 소인(小人)들의 음해(陰害)<sup>2)</sup>를 받아 마침내 참혹한 화(禍)<sup>3)</sup>를 당하여 애오라지 국운을 복돋고자 했던 이들이 어찌 부월(鈇鉞)<sup>4)</sup>을 보기를 화곤(華袞)<sup>5)</sup>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영해(嶺海)<sup>6)</sup>를 가기를 낙지(樂地)<sup>7)</sup> 같이 여기지 아니하랴. 바로 신재선생(新齋先生)은 당시의 이 같은 여러 어진 선비들 가운데 한 분이다. 선생은 갑자년(甲子年 : 1504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중종조(中宗朝)에 계유년(癸酉年 : 1513

년)에 과거(科擧)에 문과(文科)로 급제(及第)하여, 홍문관(弘文館) 저작(著作)이란 직을 제수(除受) 받고, 이어 박사(博士)에 승진하였고,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을 역임(歷任)한 뒤, 다시 옥당(玉堂 : 弘文館)에 들어가 수찬(修撰)이 되었다. 이 때 임금께서 옥홀(玉笏)을 내사(內賜)하시었는데 옥홀에는 「일인유경보명유신(一人有慶寶命維新)」이라 한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어, 조야(朝野)가 모두 이를 영예(榮譽)롭게 여겼다. 얼마 안 있어 직을 옮겨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사간원 헌납(司諫院 獻納), 이조정랑(吏曹正郎)을 역임하였으며, 기묘년(己卯年 : 1519)에는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으로 옮겨 의정부 사인 겸 경연시독관(議政府 舍人 兼 經筵侍讀官)이 되었다. 이 시대에는 임금께서 부터 유술(儒術)을 돈독히 숭상하시었으니, 제현(諸賢)들이 모두 뜻을 함께 하여 조정(朝廷)에 나아가 유술(儒術)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법(法)을 삼아 이를 다 베풀고자 하였다. 선생은 조정암 선생(趙精菴 先生) 더불어 동심합력(同心合力)하여 장차 천덕(天德)과 왕도(王道)로써 삼대(三代)<sup>8)</sup>의 융성함에 비견(比肩)할만한 치세(治世)를 이루고자 의리(義利)의 경계(境界)를 분석(分析)하고 숙특(淑慝)<sup>9)</sup>의 구별을 분명히 하며, 흥쇠치란(興衰治亂)의 원인(原因)을 궁구(窮究)하여, 미세(微細)한데에 까지도 분석(分析)하여 밝히기를 매우 개절(凱切)<sup>10)</sup>히 하였다. 그리하여 조강(朝講)<sup>11)</sup>이 해가 기울기에 이르도록 계속되어도 상(上)께서 자못 경청(傾聽)하시었다. 이리하니 여러 간신배(奸臣輩)들이 이를 미워하여 과격한 말들을 지어 퍼뜨려서 정암(靜菴 : 조광조)가장 심하게 그 화(禍)를 입었고, 이로부터 그들의 함정이 더욱 깊어지고 그물이 더욱 밀밀(密密)해져서, 삼목낭두(三木囊頭)<sup>12)</sup>한 죄인들이 도로(道路)에 줄을 이었으니 선생(최산두)도 또한 화순동복에 유배되었다. 그리하여 적거생활(謫居生活)을 무릇 15년을 하였다. 그 후 이공 준경(李公 俊慶)과 구공 수담(具公 壽聃)이 임금께 간곡한 말씀으로 상주(上奏)함이 있어 드디어 적거(謫居)에서 풀려났으나, 얼마 안 있어 모친상(母親喪)을 만나 애통(哀痛)함이 지나쳐 생명(生命)을 상(傷)하기에 이르러 병신년(丙申年) 4월 14일에 졸(卒)하니 향년(享年) 54세였다.

장사(葬事)는 광양현(光陽縣) 봉강방(鳳岡坊) 월곡(月谷)의 간좌원(艮坐原)에 하였다. 이제 옛 비(碑)가 완결(元決 : 마멸)<sup>13)</sup> 되어 후손 종수(鍾秀)·봉수(峯秀)가 장차 비석을 새로 세우고자 하여, 불녕(不佞 : 자신)에게 비문(碑文)을 청(請)하므로 불녕(不佞 : 자신)이 비록 문장(文章)이 능

8) 중국 上代の 夏·殷·周 三代, 이상적인 王道政治가 행하여졌던 시대

9) 善과惡

10) 아주 알맞고 적절함.

11) 이른 아침에 講筵官이 임금께 進講하던 일

12) 三木은 목·손·발 등에 씌우는 형구(形具), 낭두(囊頭)는 죄인의 머리에 자루 같은 것을 씌우는 것, 곧 三木을 채우고 자루를 씌운 죄인의 모습을 말함

13) 나무, 돌 따위에 새긴 글이나 그림이 다 닳아서 없어짐

14) 재주가 없는 사람이란 뜻으로 자기를 겸손히 칭하는 말

15) 중국 명나라 憲宗의 年號

16) 무작(無勺) : 옛날 미성년자(未成年者)가 배우는 락무(樂舞)의 한가지, 13세가 되면 이를 배움

17) 주자(朱子)가 지은 서명(書名), 주자강목(朱子綱目)을 달리 이르는 말

18) 인후(麟厚)

19) 희춘(希春)

20) 선생이 사숙한 스승

21) 선생의 학문을 이어가는 제자들

22) 나이가 같음.

(能)하지는 못하나 또한 조출하게나마 이성(彝性)<sup>14)</sup>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차마 끝내 사양하리요. 이에 선생의 행장(行狀)을 살펴 서(序)하노라.

선생의 휘(諱)는 산두(山斗)요 자(字)는 경양(景仰)이다. 고려(高麗) 문숙공(文肅公) 휘(諱) 용궁(龍宮)이 팔계군(八溪君)에 봉(封)함을 받아 자손(子孫)들이 이를 관(貫 : 본관)으로 삼았다 한다.

사헌부 집의(司憲府 執義)였던 휘(諱) 기연(奇淵)은 선생의 증조부(曾祖父)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였던 휘(諱) 사문(思文)은 조부(祖父)이다. 그리고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이었던 휘(諱) 한영(漢榮)은 그 아버지요, 어머니는 정부인(貞夫人)으로 청주 한공(淸州 韓公) 경회(敬澮)의 따님이다. 성화(成火)<sup>15)</sup> 계묘년(癸卯年 : 1483년) 4월에 선생을 낳으니 별의 상서(祥瑞)가 있었다. 한서예락지(漢書禮樂志 : 13세)<sup>16)</sup>의 나이에 벌써 능(能)히 경전(經傳)에 통(通)하였으며, 더 자라서는 광양(光陽)의 바위굴(학사대) 속에 들어가 자양강목(紫陽綱目)<sup>17)</sup>을 읽고, 그 후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 양선생(兩先生)에게 사숙(私淑)하였으니, 학문(學問)에 나아가는 길이 이미 정도(正道)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실천(實踐)함이 더욱篤실(篤實)하였고, 영재(英才)를 기르는 일을 자기책임(自己責任)으로 삼았다. 하서 김문정공(河西 金文正公)<sup>18)</sup>과 미암유문절공(眉巖 柳文節公)<sup>19)</sup>이 선생의 문하(門下)에서 나왔으니, 선생의 학맥(學脈)이 그 근원(根源)<sup>20)</sup>이 있고 흐름<sup>21)</sup>이 있음이 진실로 이와 같다.

부인(夫人)은 이천 서씨(利川 徐氏)로 아버지는 주부(主簿) 극수(克綬)이고 선생과 더불어 동경(同庚)<sup>22)</sup>이다. 선생보다 9년 앞서 졸(卒)하였는데 선생(최산두)과 동원(同原 : 동일묘역)에 장사(葬事)하였다. 그 규범(規範)의 아름다움을 가히 기록해 둘 만한 것이 많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병길(丙吉)은 교적(校籍)이고 차남 정길(丁吉)은 통덕랑(通德郎)이다. 교적(校籍)의 아들은 원종공신 증 참의(原從功信贈 參義)인 종원(宗元)이고 통덕랑(通德郎)의 아들은 종형(宗亨)이다. 증손(曾孫) 현손(玄孫) 이하는 번다(煩多)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오호라, 선생의 대절(大節)은 귀가 있는 이는 다 들음이 있고, 입이 있는 이면 다 칭송(稱頌)함이 있었다. 그러나 무궁(無窮)한 후세(後世)에 까지 믿음을 징거(徵據) 할 수 있는 것은 대현(大賢)의 글 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서 선생 김인후(河西 先生 金麟厚)의 제문(祭文)가운데서 몇 구(句)를 뽑아 이

에 붙여 둔다.

「높은 산 큰 구렁의 용호(龍虎) 같은 자태(姿態)시여 그 크신 키 아름다운 수염 신령스런 기골(氣骨)은 크시고도 기이(奇異) 하시었네」라 기렸으니, 이에서 선생의 의표(儀表)를 가(可)히 알 수가 있다.

또, 「유파(流波;世波)에 휩쓸려도 천성(天性) 절등(絶等)하니 닳을소나 물들소나 활연(豁然)히 툭 트여서 웅장하고 호방하여 가슴은 언제나 바람과 달을 사랑했네」에서 그 아량(雅量)을 가히 엿 볼 수가 있으며 또, 「문장(文章)은 삼협(三峽)<sup>23)</sup>의 물을 쏟아 놓은 듯 붓을 들자마자 유연히 행서초서 드날리네」에서는 그 문예(文藝)를 가(可)히 짐작 할 수가 있다.

또, 「때를 만나서는 용맹스럽게 나아가, 고기(皐夔)<sup>24)</sup>를 법을 삼아 도학정치를 베풀었네」한 대목에서는 그 경륜(經倫)을 가히 알 수가 있으며, 「언고 잃음 따위 생각지도 않네... 생각은 오히려 대궐에가 있고... 고당(高堂)의 학발 양친께 생각이 미칠적엔... 멀리 백운(白雲)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네」등의 구절(句節)에서는 그 천성(天性)이 성용(聲容)<sup>25)</sup>에서 발(發)하고 있음을 가히 알 수가 있다. 이것으로써 가(可)히 명(銘)을 삼을 수 있으니, 가히 명(銘)을 삼을 수 있으니, 명의 글은 다음과 같다.

상서로운 별 정기 받아 큰 인물이 나셨도다. 자태(姿態) 벌써 초매(超邁)하고 학문 궁구(窮究) 전심(專心)하니 바른길에 들어서서 가는 걸음 탄탄토다. 법도(法度)가 가지런하고 서기(瑞氣)가 몸에 서리니 규옥(圭玉) 같고 또는 벽옥(璧玉)같기도 하네. 일찍이 영명(英名)을 드날리고 이어 조정벼슬에 나아갔었네. 왕께서 「가상(嘉賞)하다」 칭찬하시며 발탁하여 경석(經席)<sup>26)</sup>에 올리시니 좌(左)로는 요전(堯典)·순전(舜典) 우(右)로는 대우모(大禹謨)·고요모(皋陶謨)<sup>27)</sup>로 궁리(窮理)를 거듭하며 자세히도 베풀어서 하·은·주(夏·殷·周)의 치세(治世)<sup>28)</sup>를 회복함이 아침 아니면 저녁이라 기약했었네.

슬프다. 저 간신배(奸臣輩)들 미친 듯이 물어뜯고 독(毒)으로 쏘아대며 기염(氣焰)을 날로 토해 불길처럼 맹렬하더니 북문(北門)이 밤에 열려 사화(士禍)<sup>29)</sup>가 일어나서 선비의 의관(衣冠)한 자 돌아가며 칼을 받고 거센 파도 속과 범의 굴로 남북(南北)으로 찬적(竄謫)되니 팔방(八方)에 인심(人心)이 무너지고 만백성(萬百姓)이 닳을 잃었었네. 나복(蘿菴)<sup>30)</sup>의 냇가에서 유유히 자적(自適)하니 불우(不遇)를 만나서도 형통(亨通)한 사람 같네. 오직 굳은 마음 애군일념(愛君一念)이 금석(金石)을 관통(貫通)하였네.

23) 중국 사천(四川), 湖北 兩省 경계의 양자강(揚子江) 중류에 있는 세 협곡. 고래(古來)로 배가 다니기 곤란한 곳으로 유명함.

24) 堯舜時代의 賢臣 皐陶와 夔. 고요는 형벌을 잘 다스렸고 기는 음악과 교육을 맡아 다스렸음.

25) 소리와 용모

26) 經筵官의 자리

27) 堯典·舜典·大禹謨·皐陶謨

28) 儒學에서 가장 이상적인 王道政治가 행하여 졌다고 하는 시대.

29) 己卯士禍 때 洪景舟·南袞·沈貞 등이 趙光祖 등의 道學派 士類들을 제거하기 위해 밤에 景福宮 北門인 神武門을 열고 들어가 中宗께 조광조 일파의 날조된 죄상을 告變, 誣告함으로써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됨.



30) 전라남도 동북의 옛 지명, 신재 선생의 流配地

31) 지명. 선생의 묘소가 있는 곳(本文中 光陽縣 鳳岡坊)

엮어진 동이 속을 빛이 굵어들어 붉은 죄명(罪名)이 씻어지긴 하였지만 산이 무너지듯 세상을 버리시니 백성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였네.

저 봉강(鳳岡)<sup>31)</sup>을 우러르매 위로 하늘을 간범(干犯)하며 대서(大書)로 크게 새긴 비(碑)가 있으니 바로 선생의 유택(幽宅)을 가리키네. 선생께서 돌아가신 386년 뒤 신유년(1912년)에 전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 안동 김영한 지음

### 9. 黃梅泉先生諱玆追慕碑

氣節 乃士之筋骨 故孔子曰 殺身成仁 孟子曰捨生取義 由是言之 爲人之道不外乎仁與義而已 爲士者不幸當百六之秋 宗廟社稷 至於邱墟 則損軀授命 輕於鴻毛 明大義立大節 扶綱常於既絕之地 永垂光於千萬世者 歷數今古 果有幾人哉 若梅泉黃公 亦可謂其類也歟 公諱 玆 字雲卿 梅泉其別號也 長水人也 兵使諱進后 時默子也 哲宗乙卯十二月十一日生于湖南光陽西石村 詩禮古家稟正直剛大之資 慷慨有志節 儀表端雅 聰穎過人 一經耳一過目者 終身不忘甫十歲 以詩見稱 談論 便便隨處傾座弱冠時 以文章鳴世 遍處域內名士長於史學而見古史中 立節死義處 則未嘗不掩卷泫然及天不祚韓 國事日非 則泥視軒冕 斂蹟邱園 樂物外之烟月 苦將果於忘世 而忠君愛國之情 未嘗寤寐小懈也 及庚戌屋社之日 莫勝憤 遂裁書及絕命詩 而從容就義 何其毅也 何其烈也 苟非本於學問之充養 洞見義理之當然 安能如是 光陽僉章甫 乃爲公之義蹟 恐將歸於泯滅 與公之子孫協議伐石而記



사진3-26 : 황매천선생 위현 추모비

之 屬筆于不佞亦有秉 性者 氣義時激 不敢以昏 略書所感如右云耳

歲在丙午 正月 日 玉川 趙敏植 撰

### 9. 황매천선생위현 추모비

기개와 절조는 선비의 근골(筋骨)이다. 고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이고 인을 이룬다」라 하셨고 맹자께서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 하셨으니 이들의 말을 미루어 본다면 사람의 도는 인(仁)과 의(義) 밖에는 없다.

선비가 된 자가 불행하게도 불운<sup>1)</sup>의 때를 당하여 종묘사직이 구허(邱墟)로 되었은 즉 몸을 버리고 생명을 주는 것을 흉모보다 가볍게 하여 대의를 밝히고 대절(大節)을 세워서 이미 끊어진 강상(綱常 : 사람이 행하여야 할 도덕)을 붙들고 길이 빛을 천만세에 드리울 자 고금을 차례로 헤아려 보아도 과연 몇 사람이라. 매천 황공같은 이는 감히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의 휘(생전의 이름)는 현(玗)이요 자는 운경(雲卿)이요 매천은 그의 별호(別號)이다.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병사(兵使) 휘(諱) 진(進)의 후손이며 병사 시묵(時默)의 아들이다. 철종 을묘 12월 11일 광양 봉강면 서석촌에서 태어났다. 시례(詩禮) 고가(古家)로 성품이 정직하고 강대한 자질로 강개하여 지절(志節)이 있고 의표(儀表) 단아하며 총명 영리함이 뛰어나서 귀로 들었거나 눈에 스치면 평생 잊지 아니하며 비로소 10세가 되어 시로써 칭찬을 들었다. 말에 조리가 있어 가는 곳마다 좌석에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때에 문장이 당시 주위의 명사들을 모두 놀라게 하였으며 사학에 능하여 고사중에 절의를 세우고 의리로 죽은 곳을 보고는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지 않는다 하였다.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나가자 높은 벼슬<sup>2)</sup>을 보기를 진흙같이 여겨 자취를 초야에 감추어 물외(物外)의 연월(煙月)을 즐기어 세상을 잊은 것 같으나 충군 애국의 정은 자나깨나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경술년 국가가 망한 날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책을 재단하고 목숨을 끊어 조용히 의리에 나가니 어찌 그 군세지 아니하며 어찌 장렬하지 아니한가? 진실로 학문이 충양 되었고 의리의 당연함을 통철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요. 광양의 유생들이 공의 의적이 장차 인멸될 것을 두려워하여 공의 자손과 협의하여 비석을 다듬어서 기록하는데 나에게 써 주기를 부탁하나 나도 병이(秉彝)<sup>3)</sup>의 성품이 있는 자라 기개와 의리가 때에 격동하여 혼몽한 것으로 사양할 수가 없어 상문과 같이 간략하게 쓰노라.

병오년(1966) 정월 옥천 조민식 찬

1) 百六之秋=106년 마다 찾아오는 액운을 말함. 陽九之厄과 같은 뜻임. (漢書 谷水傳)

2) 軒冕=軒은 大夫들이 타는 수레, 冕은 大夫들의 옷

3) 타고난 품성을 지킴

## 10. 義兵 姜希輔 · 希悅 兄弟將軍 墓碑



사진3-27 : 의병 강희보 · 희열  
형제 장군의 묘

悠久한 우리 民族史上 頻繁한 外侵에서 憂國  
愛族에 불타는 悲憤慷慨之士가 蹶然히 義兵을  
糾合하여 賊勢를 挫折하고 國脉을 蘇生케 하여  
靑史에 燦然한 偉業을 남긴 것은 壬亂戰禍에서  
顯著하였던 것이다. 宣祖二十五年 大舉來侵한  
倭賊이 一路北上하여 國家民族의 運命이 累卵  
의 危機에 逢着하게 되자 光陽郡 儒生 姜希輔  
公과 그 弟前武科奉事 希悅公은 決然히 舉義한  
兄弟 義兵將으로서 四方에 馳檄하여 義兵을 招

募하고 嶺南으로 出征하여 丹城에서 戰功을 세웠으며 倭賊에 包圍된 그 伯  
叔麟祥을 救出하였다. 戰局은 翌年 正月에 이르러 倭賊은 平壤에서 敗走하  
고, 六月에 嶺南地方으로 南下集結하였는데 倭將 加藤清正等은 前年の 大  
敗를 雪辱하고자 約五萬軍으로 再次 晉州城을 侵攻하게 되었다. 이때 宜寧  
等地에 集結한 都元師 金命元和 全羅巡察使 權慄等 諸將들은 舉皆 全羅道  
로 後退하였는데 홀로 倡義使 金千鎰은 奮起하여 「湖南保全을 爲하여 그  
脣齒의 要地인 晉州城을 固守하여 賊勢를 防遏하는 것이 當然하다」 고 力  
說하니 이에 欣然 贊同한 義兵將伯公은 倡義使를 先頭로 忠淸兵使 黃進等  
十餘人和 더불어 率兵하여 晉州城에 들어갔었다. 이때 義兵將 季公은 助防  
將을 兼하여 數邑 軍兵을 領率하고 求禮郡 石柱關을 守備하고 있었는데 晉  
州城 存沒의 急報을 듣고 「官軍이 危難을 避하는 것도 不可한 일인데 況且  
義兵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卽時 麾下兵을 領率하고 晉州城에 當到하여  
兄弟 兩公이 感激 相逢하여 守成滅賊을 盟誓하니 城中이 踴躍하여 士氣가  
激昂하였으나 城中 兵力은 不過 數千이었다. 周圍의 殘存 官義軍과 明軍의  
救援없는 孤立狀態의 六月二十一日부터 熾烈한 兩軍의 大功防이 展開되니  
寡不敵衆을 念慮한 伯公은 麾下의 忠勇한 同鄉 副將은 林遇華로 하여금 外  
援을 請하기 爲하여 出城케 하였으나 途中 倭賊에게 生擒되고 二十七日에  
倭賊은 城의 東西門外에 築造하였던 五阜의 竹柵에서 一齊 發砲하니 伯公  
은 이를 防禦 奮戰하다가 그 從弟 希元과 함께 戰死하였다. 季公은 涕泣奮  
劔하고 復讐를 盟誓하여 더욱 奮戰 血鬪하였으며 倭賊의 連日 猛功을 恒時  
奇計로 粉碎하였으나 兵孤勢逼하여 未久에 陷城의 悲運을 맞게 되었다. 季

公은 金海 府使 李宗仁 等 十餘人과 더불어 賊中에 突擊하여 奮劔斫賊하고 力盡而死하였으며 倡義使 金千鎰 等 十餘人도 投江而死하니 激戰 九日만인 六月 二十九日이었다. 陷城한 倭賊은 類例없는 殘虐을 極하였으나 그들도 많은 將卒이 死傷하였고 銳氣가 挫折하여 沿岸으로 分散할 수밖에 없었다. 陷城으로 因하여 비록 六萬餘의 城內州民이 被戮되었으나 孤城兵力으로 九日間의 抗戰과 忠勇無比한 諸將들의 壯烈한 最後는 百世를 聳動케할 뿐 아니라 그 崇高한 犧牲으로 湖南이 保全되어 繼續軍餉의 維持로 民族의 抗爭을 持續케 하는데 貢獻하였다. 兄弟兩公은 都元師 以下 高位將臣들도 倭賊과의 決戰을 回避하였는데 慷慨衝天하여 晋州城으로 向하였던 그 滅賊精神은 城의 守陷에 拘碍없이 길이 靑史에 光芒을 發할 것이다. 兩公은 戰後 晋州 彰烈祠에 配享되었고 英祖朝에 伯公은 戶曹佐郎에 季公은 兵曹參議로 贈職되었다. 伯公은 字는 士達이며 號는 陶灘이요, 季公의 字는 士賢이며 號는 石灘이니 其先은 晋州人으로서 麗代 名將 姜民瞻 段烈公의 十四世孫이요 兩公墓는 그 出生[日]基인 光陽郡 鳳岡面 莘村里 後山의 子原雙墳이다. 壬亂以來 于今까지 國家의 興替와 民族의 盛衰는 實로 無常하였으나 難誣者는 良心이요 不滅者는 正義이므로 兩公의 舉義卓節은 더욱 後人을 感奮케 하여 西紀 一九七〇年 庚戌에 季公 十二世孫 允珍의 周旋으로 光陽士林과 晋州姜氏 門中人士를 爲始한 道內有志人士가 義兵將 姜希輔, 姜希悅 兄弟將軍 崇慕會를 發起 創立하여 翌年에 同會는 國費補助로 兩公墓所 補修를 畢하고 西紀 一九七四年 甲寅에는 光陽郡費 補助와 特志家의 贊助로 兩公 散華後 三百八十二年만에 墓碑를 建立하게 되었으니 이는 오직 兩公의 舉義大節과 臨戰無退의 氣慨를 追仰하여 民族正氣를 振作하는데 그 眞意가 있는 것이다. 於戲 壯烈한 兄弟將軍의 捨生取義와 殉國 立節은 侵略에 抗爭하여 民族을 保衛하는 崇嚴無比한 精神의 發露로서 義勇의 源泉이요, 不朽의 龜鑑이로다.

西紀 一九七四年 甲寅 光復節

密陽后人 朴泰相 謹撰

晋州后人 姜達遠 謹書

## 11. 處士徐公巖淵亭遺墟碑

縣監 義城 金重南



사진3-28 : 처사 서공 암연정 유허비

海東山水之勝甲於天下 湖嶺山水之勝甲於海東 晞陽縣山水又甲於湖嶺 岩淵亭景致又甲於晞陽 考諸輿地勝覽班班可見也 盖其巖巖維石 虎踞而龍盤從 下視之則斬折峻急不可攀 諸由上觀之則坦坦平平 無陷無側 鷹峰乃其來龍也 下有十里長洲 烟波渺茫 上下<sup>霄</sup>光一碧萬頃 源出白鷄之山 來自玉龍之洞 而巖作淵之屏 淵爲巖之帶 無淵則巖無以助其景 而只爲仁者之所樂無巖 則淵無以增其輝 而只爲智者之所樂 既有不遷之狀 又有無滯之用 仁者見之則取其靜 智者見之 則取其動 具兩美而爲 作萬古之勝地 此其大觀也 若夫雲岳峙其北 疊嶂層峰 如揖如向 大海經其南 怒濤狂瀾 若起若助 西瞰邑府 風送角聲 東壓梨岫 松韻清絕 春服既成之後 點琴<sup>澗</sup>雨之餘 二三諸子 五六冠童 浴乎風乎<sup>咏</sup>而歸之 于斯時也 汀蘭郁郁崖芷青青 泉石之景色新新 物我之生意<sup>諠諠</sup> 及乎夏日當午 平野極目黍稷<sup>穰穰</sup> 禾粟<sup>芊芊</sup> 農歌互答 此樂何涯至其斗柄初回 秋意漸長 長煙一空 片雲掃跡 月照巖畔 桂影婆娑 風來水面清意一盤 乃若雪白湖山淵巖一色 林林玉簇 樹樹粧水角嵯峨 疑是空中之樓角 海帆出沒 望若有無之神仙 烟霞魚鳥之呈態 高低遠近之有情 若使蘇仙 較勝槩於赤壁 則吾恐先此而後彼也 第念人傑地靈 千載一時 耳聆之目觀之 足踏之行過之者 曾不知其幾許而未聞有愛慕之玩賞之藏修之者 惟徐處士千鎰 一見便知其爲異 不惟愛玩 而又從而封植之又從而標榜之 崇臺華屋 以壯其觀 佳詞麗句 以贊其美 爰居爰處 爰笑爰語 物外之天地自寬 閑中之風月無邊 釣於斯 採於斯老於斯 終於斯 繼之而主管之 踵武而盤旋之者 首尾盖百有餘年矣 不幸兵火之餘 朱門畫閣 盡爲灰燼 與其人共滅而俱亡 豈不惜哉 雖然 可灰者其宇而 不可灰者其基 可滅者其蹟而 不可滅者其景 之基之景宛然依舊不以亭宇之存滅 有所損益 而其修也其粧也欲必待其主而應 苟非其人 雖欲取而不爲吾有也 觀其巖麓洲渚 荒草茂沒巖角磯上 莓苔掩<sup>翳</sup> 俗客<sup>晨</sup>眼 曾不知其可貴 則豈非天<sup>慳</sup>而地秘 以遺夫江山主人者歟 主人爲誰卽 徐老爺之玄孫薰龜 聖瑞其字也 夫仙區之被占於人世 所<sup>罕</sup>有 至於再占於一家 重光於一門 尤是罕有之奇遇也 斯亭也 先作徐大老之所管人與物而相得矣 今又不入於他眼終歸於徐氏 信乎物各有其主也 噫 亭<sup>榭</sup>之修廢 候於人物之盛衰 彼徐君 志不奢而儉 物不富而貧其於鳩材立館 不宣急急 而惜其先代遺蹟 拋棄於荆<sup>藎</sup> 慨然有志 肯堂肯構之計 荒者除之<sup>翳</sup>者刪之 缺者築之 虛者補之 於是 埋光者著其光 晦彩者顯其彩



潔者愈潔 奇者益奇 依依然誤誤 然若有情於感遇也 兵 亦異矣 工未半 屬余  
 作文以記之 余不敢以不文辭者 恐負吾平生慕想之心也 余以庚申六月 謫于  
 此地於亭 見岩淵於人 見徐君微斯人 與斯亭 吾誰與歸

### 11. 처사서공암연정유허비<sup>1)</sup>

현감 의성 김중남<sup>2)</sup>

우리나라 산수의 경치는 천하에서 으뜸이요 호령(湖嶺) 산수의 경치는  
 우리나라에서 으뜸인데 희양현 산수의 경치는 호령에서 으뜸이 되며 암연  
 정(隱亭)의 경치는 또한 희양에서 으뜸이로다. 저 여지승람(與地勝覽)을 상고하  
 여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대개 그 바위와 돌은 호랑이가 웅거하고 용이  
 서린 것 같아 아래서 보면 깎아 세운 듯 높고 급하여 가히 잡고 오를 수 없  
 으며, 위에서 보면 탄탄하고 평평하여 패인 곳이나 기울어진 곳이 없고 응  
 봉(應奉)은 그 내룡(來龍 : 산맥 뻗어온 것)이라. 아래에 십리라 뻗은 물가  
 의 은은한 파도는 아득하여 위 아래의 하늘과 만경의 푸른빛이로다. 백계산  
 (白鷄山)에서 근원하여 옥룡동으로 뻗어 바위는 못의 병풍이 되고 못은 바  
 위의 띠가 되었으니 못이 없으면 바위로서는 그 경치에 도움이 되지 못하  
 며 다만 인자가 좋아하는 바요, 또한 바위가 없으면 못이 그 광채를 더하지  
 못하니 다만 지자의 좋아하는 바로다. 이미 옮길 수 없는 형상과 또 막히지  
 않게 쓰일 수 있으니 인자가 본즉 그 정(靜)을 취할 것이고 지자가 본즉 그  
 동(動)을 취할 것이니 이 두 가지 아름다움을 취하여 정자를 지어서 만고의  
 승지와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그 대개의 경치이다.

대저 운악치(雲岳峙) 북쪽의 첩첩한 산봉우리는 읍(揖)하는 것 같고 큰  
 바다가 그 남쪽을 지나 노도(怒濤)가 광란(狂瀾)하는 것은 흡사 솟구치는  
 듯 떠받드는 듯 하며 서쪽으로 읍부(邑府)를 바라보면 바람은 피리 소리를  
 내어 보내는 듯 동쪽으로 이현(梨峴)을 둘러 소나무의 운치가 맑기 그지 없  
 도다. 봄옷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거문고를 쟁하고 튕긴 뒤에 두 세 제자와  
 오옥 관동(五六冠童)으로 목욕하고 바람 쐬이며 읊으며 돌아오도다. 이때  
 에 있어서 물가의 난초는 옥옥(郁郁)하고 언덕의 지초(芷草)는 청청하여  
 샘과 돌의 빛깔은 새롭고 만물과 자신의 생의(生意)가 성하도다. 여름날 한  
 나절이 되어서는 평야가 눈에 끝이 없고 기장과 피가 빼어났으며 벼와 조  
 가 무성하도다. 농부의 노래를 회답하니 이 기쁨이 그지 없도다. 북두칠성  
 이 처음으로 돌아 가을이 다가오니 긴 연기는 하늘에 뻗고 조각구름은 건

1) 巖淵亭은 玉龍面 雲谷里에 있  
 었던 徐千鑑이 지은 정자. 그  
 는 조선 중종때 行義로 천거  
 되어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巖淵亭을 지어  
 이곳에서 학문에 전념하였  
 다. 이 記文은 폐허가 된 巖淵  
 亭을 千鑑의 증손인 신구가  
 다시 세운 이후에 이를 記한  
 것이다. 신구는 호가 月波이  
 며 仁祖 11년 癸酉生(1633년)  
 이니 이 글이 씌어진 것은 庚  
 申六月이니 숙종6년 1680년  
 6월이다. 遺址의 바위에는 지  
 금도 신구가 새겨놓은 巖淵亭  
 의 글자가 남아 있다.

2) 縣監 金重南으로 되어있는데  
 역대의 光陽縣監중에는 金重  
 南이란 인물이 없다. 글의 내  
 용으로 보면 현감 벼슬을 지  
 낸 金重南이 광양에 유배 와  
 서 記文한 것인 듯 하다.

히어 자취 없으며, 달은 바윗가를 비치고 계수나무 그림자 흔들리고 바람이 수면에 이르면 맑은 이 기분 그만이로다. 눈이 호수와 산을 덮으니 못과 바위가 한빛이고 숲은 옥의 활촉이며 나무마다 은빛으로 장식하였도다. 얼음이 얼어 산처럼 높이 솟으니 공중의 누각인 듯 하다. 바다의 돛단배가 떴다 잠겼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 있는 듯 없는 듯 신선같고 연운(煙雲)에 어조(魚鳥)의 노는 자태는 높고 낮으며 멀고 가까운 것이 정답기도 하다. 만약 소동파와 적벽가의 경치를 비교한다면 나는 아마도 이 곳을 먼저 손꼽을 것이고 저곳을 뒤로하리라. 이제 생각하니 인걸은 지령(地靈)이며 천년이 한 때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행하여 지나간 사람이 일찍이 몇인지 알 수 없으나 애모(愛慕)하고 완상(玩賞)하려는 자를 듣지 못하였도다. 오직 처사 서천익(徐千謫)이 한번보고 문득 기이한 것을 알아 오직 애완(愛玩)할 뿐만이 아니라 또 곧 흙을 쌓고 나무를 심으며 표방(標榜)하여 높은 대와 화려한 집을 지으니 그와 누관(樓觀)이 웅장하고 시와 노래로 그 아름다운 것을 찬미하여 거하고 처하며 웃고, 속세를 떠난 천지를 말하고 스스로 한가한 속에 풍월의 끝없음을 자적(自適)하였다. 여기서 낚시질하고 나물 캐고 여기서 눕고 마치며 계속 주관(主管)하고 걸어나다니며 돌아다니는 것이 대개 백년이 되었다. 불행하게도 병화(兵火)로 나머지 주문(朱門)과 화각(畫閣)이 모두 불타버려 그 사람과 함께 망하였으니 어찌 어색하지 않으랴. 그러나 가히 탈수 있는 것은 집이고 타지 못하는 것은 터라, 가히 멸한 것은 그 자취이지만 멸할 수 없는 것은 경치이다. 터와 경치가 완연히 옛과 같아 정우(亭宇)의 존멸과 손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수하고 단장하는 것은 반드시 그 주인을 기다려 응하는 것이니 적격한 사람이 아니면 비록 취한다 하더라도 그의 참다운 소유가 될 수 없다. 암록(巖麓)과 주저(洲渚)의 황초(荒草)는 무성하였지만 시들고 암각(巖角)과 기상(磯上)의 매태(莓苔)는 가려져 숨겨지니 속객(俗客)들로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본래 귀한 점을 알지 못하느니 어찌 하늘이 아끼고 땅이 숨겨 놓았다가 강산의 주인을 기다리기 위하여 빠뜨려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주인은 누구인가? 서씨 노인의 현손(玄孫)인 친구(薰龜)이며 자는 성서(聖瑞)이다. 대저 선경(仙境)이 인간 세상에 점유된 것이 드물게 있지만 두 번이나 한집의 소유가 된 것은 이 집안에 거듭 영광된 일이니 더욱 드물게 있는 기연(奇緣)을 만났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정자는 먼저 서씨 노인이 지어서 관리하였으니 사람과 자연이 서로 알맞다 할 수 있다. 지금 또 다른 사람의 눈

에 쓰이지 아니하고 마침내 서씨에게 돌아갔으니 참으로 물건은 각각 그 주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 정사(亭擲)의 보수되고 폐하는 것은 물의 성쇠(盛衰)에 달렸으니 저 서씨의 뜻은 사치하지 아니하고 검소하며 물건이 풍부하지도 아니하고 가난하였건만 재목을 모으고 관을 세우는데 급히 서둘지 아니하였다. 조상의 옛 자취가 잡목 속에 없어진 것을 슬피 여겨 개연히 땅을 지을 계획을 하여 잡목을 치고 거추장스러운 것 치우고 결핍한 것을 쌓고 비어 있는 곳은 보충하였다. 이리하여 숨겨진 빛은 다시 그 빛을 받고 채색이 흐린 것은 그 채색을 나타내게 되었고 깨끗한 것은 더욱 깨끗하게 되었으며 기이한 것은 더 기이하게 되었고 의의(依依)<sup>3)</sup>하고 혼혼(欣欣)<sup>4)</sup> 하게 다시 옛 모습을 보니 정이 있는 것 같구나.

아! 또한 기이하도다. 건축의 일이 다 되지 않아서 나에게 글월 지어 기(記)하기를 부탁하니 내가 감히 못한다 하여 사양할 수 없는 것은 나의 평생 사모하고 상상하는 뜻을 저버릴까 두려워서이다. 마침 내가 경신 6월에 이곳에 유배되어 와서 정자에서 암(岩)과 연(淵)을 볼 수 있었고 사람에게 있어서 서씨를 보게 되었도다. 아! 이 사람과 이 정자가 아니면 내가 뉘와 함께 돌아가리요

3) 나뭇가지가 휘늘어진 모양

4) 기꺼움

## 12. 禹禎圭興學碑

咸陽 朴徽鎮

本縣舊有興學之齋爲多士隸業之所矣齋毀已久只傳其名故士人徐公昌祐鄭公壽甲以校任鳩財與鄭公壽龜同謀買土以備接糧去壬戌任侯遠甫慨然於邑之無學舍欲以竹寺爲齋而又給屬公田畚事未能而侯卽遞只存節目一冊乃者禹侯禎圭政先右文勤於勸課士風丕變文才蔚興翌年甲辰冬遂與邑子謀構其齋又以有登島量外加耕田一十六石只屬之爲養士需吁其美矣鄭斯文榮甫以鄭公壽龜之孫能繼祖武董其役而齋乃成事非偶然竊嘗禹侯豈弟人也學博而文贍政清而人和百里桑麻陽春有脚興學乃其餘事也鄉老徐君潤和許君珽甫與鄉士謀豎石於齋之傍以頌美政徐君故徐君昌祐之子也其肯構之意亦寓於此矣不佞自瑞石來寓於玉龍洞耳聞目覩不勝欽歎遂爲之銘曰齋奚以作作之者侯學奚以興



사진3-29 : 흥학재 옛터

興之者侯侯來何暮齋始焉構興於是齋惟侯是慕  
(번역문 생략)

### 13. 孝子 梁福洙 旌閭碑



사진3-30 : 효자 양복수 정려

夫孝者人之大節教之大<sup>卒</sup>也人之生也真  
不有親既有親矣真不欲孝孝之心人皆有之孝之<sup>稱</sup>鮮能有之抑有其  
心不能盡其誠而然歟菽水以盡其歡寒暖以適其<sup>體</sup>不<sup>足</sup>以謂孝病致其  
憂養致其樂不<sup>足</sup>以謂孝至於宗族<sup>稱</sup>之鄉黨慕之猶不<sup>足</sup>以謂孝根天而  
天誠薦格天而天感至然後斯可謂之孝矣<sup>氣</sup>盖千百代僅一二計故王祥  
之侍病天與鯉供其占夏方之廬墓天以獸馴其傍此皆誠感所召而人到  
于今<sup>稱</sup>之斯人也予於孝子福洙具之福洙姓梁南原人故<sup>荆</sup>設奎章閣明  
亮佐理功臣崇政<sup>吏</sup>判書弘文館大提學諡文<sup>襄</sup>公諱誠之彌訥齋十二  
世孫也自孫提孝心根天六歲而血指及長而<sup>主</sup>股<sup>得</sup>親年之引養<sup>氣</sup>乃天  
誠所孚 而病焉而鯉出墓焉而虎衛<sup>氣</sup>又天感所應也 斯可與王祥夏方  
輩千載而比肩然王 夏方著於史列於簡編使後人猶得慕其誠激其感

獨<sup>稱</sup>洙無得而<sup>詔</sup>後可不惜哉今其子柱五能追其孝思登諸衆聞朝廷爵而顯之  
播紳詩而揚之大節由是而立教化由是而興不猶愈於王祥夏方之著於史列於  
編乎予雖無詩雖未能揚其<sup>聲</sup>播其

烈猶心嘉而口不容<sup>贊</sup>茲序贈之

辛未暮春下澣

崇政大夫行吏判書兼判義府事知 經筵

春秋館事 弘文館 提學同知成均館事五衛都

愔府都總管 趙秉昌 序

### 13. 효자양복수 정려비

무릇 효는 인간의 큰 절의요 가르침의 근본이다. 사람의 생애에 아버지가 없을 수는 없으니 아버지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효도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니 사람마다 모두 효심은 가질지라도 효자로 일컬어지는 일은 드물다. 효는 또한 그 마음을 억제 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그 정성을 다할 수는 없으

니 정녕 그렇지 아니한가? 콩먹고 물마시는 가난 속에서 섬기며 추위 더위에 편안히 모시고도 효자라 이르기엔 부족하고, 마음을 다 쏟아 병구환을 하고 즐거움으로 봉양하고서도 효자라 이르기엔 부족하다. 온 집안(종족)이 칭송하고 온 고을이 흠모하여도 오히려 효자라 이르기엔 부족할 것이다. 하늘에 뿌리를 두고 하늘이 성심으로 인도하며, 하늘에 닿아 하늘의 감응이 지극한 연후라야 이를 가히 효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개 천대 백대를 가야 겨우 한 돌을 헤아리므로 왕상이 병시중을 들 때 하늘이 잉어를 내어 그 뜻을 이루게 했고, 하방이 시묘살이를 할 때 하늘이 짐승을 달래어 그 곁에 있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모두 그 정성과 감화에 부응한 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을 오늘날까지 효자로 칭송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내가 효자 복수(福洙)를 살피건대, 복수는 성이 양씨로 본관이 남원이다. 규장각을 창설했던 명량좌리공신 승정 이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문양공 놀재 양성지 선생의 12세손이다. 아이 때부터 발로한 효심은 하늘에서 비롯된 것인지라 이미 6세에 손가락에서 피를 내고, 자라서는 허벅지 살을 베어 아버지를 구환하더니 나이가 들어가며 더욱 극진히 봉양한 바 이는 곧 하늘이 성심으로 길러낸 것이요, (부모의) 병환에 잉어가 나오고 시묘할 때 범이 지켜주니 이는 또한 하늘이 감화하여 응대한 것이다. 가히 왕상과 하방의 무리와 더불어 천년만에 비견한 것이다. 그러나 왕상·하방은 역사와 사적에 기록되어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그 정성을 사모하고 그 감화를 새롭게 하는데 유독 복수만이 후세 사람의 가르침이 될 수 없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으랴? 이제 그 아들 주오(柱五)가 능히 그 효를 추모하여 여러 곳에 나아가 아뢰니 이를 듣고, 조정에서는 벼슬을 내리어 현시하고 대작(진신)들은 시를 지어 드높이였다. 대절이 이로 말미암아 교화를 이루었으니 이래도 그 감동이 왕상과 하방이 역사와 사적에 기록된 것만 같지 못하다 하겠는가? 내가 비록 시재가 없어 그 훌륭함을 다 빛내지 못함에도 그 절의를 널리 알리고자 하매 마음은 오히려 가상하지만 글재주가 이를 따라 주지 못하나 이서를 지어 올린다.

신미(1871년) 삼월 하한

승정대부 향 이조판서 겸 판의부사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재학 동지성균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조병창 서



#### 14. 通政大夫 月波徐公 遺蹟碑



사진3-31 : 통정대부 월파서공 유적비

公姓徐諱盡龜字聖瑞號月波籍利川元肅公諱訥后文毅公諱浩九世孫高祖千鎰巖淵處士曾租夢麟嘉善同樞祖諱孝行通政大夫考諱英益號東谷也公稟性寬厚敦行孝悌持心謹慎飾躬清儉尊慕聖賢敦尚文學弱冠陪其大夫東谷公謁尹孤山善道於匪所勤勤清益孤山甚器之自是文學大進 後李葛庵玄逸又謫于慈縣公又卒子爾微往從之其尊敬禮貌亦以所事孤山者事

之時本懸校宮有移建重創之役校中財源枯竭公以杳六十斗落屬之屬竣其功縣之東數里有巖淵亭公之高祖處士公之遺蹟也公不忍廢不忍荒重建一亭於舊址作詩揭之一時名儒多有唱和囑縣監金重南記之又就岩面刻維石巖巖淵淵其淵八字以寓永思之誠岩淵上流又有水石其絕處公暇日登臨以漁釣自樂又刻釣臺二子民到于今稱之曰月波釣臺及其暮年德學深邃 望隆重遠近士友請業者衆戶外之屢常滿焉以萬陞通政著尚賢錄而自序之禁府都事李敏佐跋之曰公之九世孫幸植訪余於龍山亭曰吾先組月波公之釣臺因雲仍之不肖幾至荒廢將使後世不知何許人之遺蹟也故深恐之乃伐片石而堅以圓萬傳顯吾族叔有一言爲余以不文不敢辭者余於公焉旁裔而慕仰高風久矣故志其固陋謹依行狀而略敘如右 旁裔漢周

#### 14. 통정대부 월파서공 유적비

< 해서 >

月波台는 광양읍 우산리 월파마을에 위치한다. 월파(月波)는 서진구(徐盡龜) (1663~?)의 호(號)는 암연처사(岩淵處士) 서천일(徐千鎰, 제3편 1장 암연정에 관한 詩의 註참조)은 그의 高祖이다. 월파대란 곧 월파공이 낚시하던 곳이다.

1970년 4월 월파대(月波台)에 월파공유적비(月波公遺蹟碑)가 섰다. 이 비문(碑文)은 월파공이 이곳에 유배 온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가 향교(鄕校) 교궁(校宮)의 중건(重建) 관여했다는 등의 당시의 문화풍토를 짐작케 하는 공적(公的) 기록이 많으므로 광양시지편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기에 그 비문(碑文)을 소개한다.

집필 : 한국한시협회 회원 박종길